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4 9 | 10



서울시 중구 청춘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매벌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률 100호 2004년 09/10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은이 이강신주, 김희정/펴낸날 2004년 9월 5일

여는 글	어린이집과의 '협력'	서정순	2
보육 정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교육정책팀	5
보육활동			
아동교육	"몸도 마음도 편하게 놀자"	김지혜	12
포괄적사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노는" 단오 되찾기	황미혜	17
좋은그림책소개	구름놀이	김경혜	26
그림책을 읽어주고	가슴 뭉클한 자매의 사랑...	조지영	28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고정미	30
어린이와 환경	작은 마을 평동엔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서은희	42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해맑은 세상 아이들 이야기	안미경	44
보육교사일기	함께 일하는 교사를 통해 배우 아이 사랑법	이화숙	46
육아일기	아기가 생기며 달라진 삶의 단편들...	김수연	48
만나고 싶은 사람			
새내기인사	여럿이 함께	김규	51
만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되어 다시 뭉치다	손수정	54
힘내라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의 말! 말!! 말!!!		편집부	56
지부활동			
경기지부 수련회를 마치고		송준금	60
"우리네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희망 만들기"		김찬숙	61
향기 있는 여인이 되어-		김미옥	64
독립된 인간의 기본		구미진	66
2004년 인천 열린 강좌		정영숙	67
중앙활동			
생활속에 실천하는 아동인권 1		서정순	69
아동인권 찾기		김명숙	75
세상읽기	달밤에 체조하고 싶다	김진숙	77
알림란		편집부	80
보육계풍향		편집부	82
소식과 소식		편집부	86

어린이집과의 '협력'?

서 정 순 · 고은 어린이집 자모

고은 어린이집은 비리 문제로 위탁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서정순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0명의 정원초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잡부금 수납, 작은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대기자가 얼마데'로 시작되는 인격적인 모독. 제가 알고 있던 문제점은 '새발의 피'라고나 할까요? 엄마들 하나하나가 쏟아내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은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구립 시설장 연합회의 부회장 역임에 평소 구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구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다수의 부모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아는 '능력' 있는 원장님이셨는데 제위탁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70점을 못 넘기는 바람에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느껴졌던 우리 어린이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의 심정이 딱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었나 봅니다. 그것도 내 발등이 아닌 '금쪽같은 내 새끼' 발등이라고 생각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엄마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그런 사태를 자초했다는 죄책감과 전 원장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 새로운 위탁운영체와 원장님께 '건제와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죠. 부모들의 힘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어보고자 열혈 엄마들은 필사항전의 자세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보육교사회에 상담도 요청한 바 있지요. 그런데 한국보육교사회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본질은 시설장이나 교사와의 협력이지 견제나 감시가 아니다'란 말에 저는 충격과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리를 일삼고, 어린이집을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이 존재하는 보육시설에 '협력'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자식 사랑으

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부모들도 소수 있지만, 특히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대다수 부모들은 절대 약자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나 부모회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협력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 만큼이나 나쁜 것 같아요. 진정한 '협력'은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고, 올바른을 견지하는 가운데 원장·교사·부모가 대등한 관계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교사회, 부모회는 물론 지역 단위별로도 교사 대표 연합회, 부모 대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이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엄마들은 한국보육교사회와의 상담을 계기로 '협력, 협력, 협력!'을 주문처럼 외우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 엄마들을 '활용' 해주길 부탁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엄마를 동반한 캠프답사가 있었고 그 캠프에 엄마들이 도우미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 2학기부터는 주방 보조와 토요일 대청소 도우미도 해야 합니다. 반별 대표 엄마들 중에서도 '누가 그런 거 하자고 했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집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어린이집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성역할 이데올로기 강화에 일하는 엄마의 노동을 가중시킬 것 같아 찝찝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집안일은 안 해도 어린이집 일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주방보조는 몰라도 토요일 대청소는 아빠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겠죠. 놀이나 나들이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방식의 부모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구요.

이곳저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지는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비리에 대해 시설장과 관리감독기관만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닫힌 어린이집은 그렇잖아도 열악한 보육 환경에서 비리의 씨앗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 최소한 자기 아이를 맡긴 시설 내부를 눈치 보지 않고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물론 아이들이나 선생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적어도 같은 반 보호자들끼리는 기본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보호자들이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은 협력의 기본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맡겨온 엄마들조차 보육교사나 원장의 월급이 얼마

지,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노동 강도가 어떤지 의외로 모르더군요. 기본적인 보육노동은 물론 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정치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까요?

왜 원장님들은 그들만의 조직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걸까요? 왜 보육 교사들은 노조는커녕 구 단위의 조직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건가요? 8시간 노동, 그 노동에 합당한 적절한 임금, 교사 대 아동비를 축소, 시간외 수당 지급, 법정 휴가 준수, 경력 인정과 교사로서의 인격적 대우, 보육의 공공성 확립!

'콩밭 댈래? 아이 볼래?' 물으면 콩밭 댐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보육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수준이 됩니까? 아이를 돌보는 데 절대적인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함께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원장, 교사, 보호자들이 함께 모여 산적인 보육 문제를 토론하고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세워 치자체나 중앙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 되는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정리 · 교육정책팀

지난 7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여성부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아래 자료는 이 공청회에서 발표된 여성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이다. 여성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뒤, 하반기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1월 30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1. 총 칙

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위원 임기(2년),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 향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의 조정 필요

나.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육계획 수립, 보육과정 제·개정,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 비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20인 이내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부차관, 당연직 위원은 보육정책국장으로 함.
-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국민연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다. 보육정보센터

-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 및 정보 제공, 보육관련 기초 자료조사 및 제공,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이용자 상담 등으로 기능 재정립
-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現 보육지도원) 자격요건 강화, 전산지도원·영양사·간호사 등 기타 종사자 자격요건 구체화
 - 센터장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
 - 보육전문요원 : 1급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등

라. 보육개발원

- 정책 연구,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및 자격검정, 평가인증 관련업무 등으로 기능을 명시

마. 보육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가구조사(보육수요, 서비스이용 욕구 및 만족도)와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시설조사(시설 환경·설비, 종사자, 이용아동, 프로그램·비용 등)로 구성되며, 매 5년마다 실시

2. 시설 설치

가. 보육계획

-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매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육사업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설치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 후 보육수요·입지조건·설치기준·종사자 배치 등을 고려하여 현지 확인 후 인가
- 인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다. 설치기준

- 신규 시설은 내년 1월 30일부터 적용, 기설치 시설은 5년의 경과규정을 둠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하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규정 준수를 명시
- 시설종류별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되,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부모 15명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으로 규정
- 구조·설비 중 안전 관련 규정 강화
 - 시설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늘리고('94년 2월이전으로 환원), 보육실 규모도 영유아 공히 2.64㎡로 통일
 - 보육실 설치는 1층을 원칙으로 하되 2·3층을 사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건

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와 직장보육시설로 한정

- 환기·채광·조명·습도 등 학교보건법의 기준 적시
- 조리실·목욕실·화장실 등 안전 관련 규정 강화
- 옥외놀이터 설치 예외 시설규모를 52인에서 50인으로 조정
- 비상재해대비시설 관련 규정 강화 및 구체화
- 가정보육시설 설치장소를 단독·공동주택으로 명시
- 모든시설의영아반은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비기준 구체화
-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 설치기준 명시
- 보육시설 정원의 상한을 명시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기준(300인 이내) 준용 검토 중

라. 직장보육시설

-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무사업장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

3. 종사자

가. 종사자 배치기준

- 신규 시설은 내년 1월 30일부터 적용, 기설치 시설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둠
-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규모를 기존 4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강화
 -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제외
-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규정을 세분화
 -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 이상 20인당 1인으로 강화
 - ※ 기존 2세 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이상 20인당 1인
- 장애아 교사는 3인당 1인으로 하되,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고, 기타 치료사도 채용 가능 ※ 현행 5인당 1인 (10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50인 이상 시설은 취사부를 조리사 자격중 소지자로 채용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규정(기존 시설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둠)

- 기타종사자로 사회복지사, 위생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종사자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 등 내용 포함, 휴가 시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추가

나. 종사자 임면·경력관리

- 기존 시설에서 하던 종사자 경력관리는 시·군·구에서 하도록 규정 (법 제19조제1항 의무사항)

다. 시설장 자격

- 기존에 자격을 인정했던 간호조무사, 영양사, 중·고 교사 경력자,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등 삭제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2년, 유치원교사 1급 취득 후 3년, 초등학교 교사로 5년,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로 3년, 의사로 5년, 간호사로 7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등 자격요건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관련으로 한정하고 경력요건 강화
- 가정보육시설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포함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간호사로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자도 포함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장 유자격자중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공자, 장애아보육시설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 또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

라. 보육교사 자격

- 보육교사의 등급을 1, 2, 3급으로 세분화하고, 보육교사 1급은 2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대학원졸업자는 1년 이상)로서 승급교육을 필한 자
- 보육교사 2급은 대학(또는 전문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1과목 이상 3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3급으로 1년 이상 경력과 승급교육 필한 자
- 보육교사 3급은 고졸 이상으로 교육훈련시설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마. 대학 교과목

- 기존 165개 교과목을 보육과 밀접한 과목으로 축소하여, 필수(보육실습 포함)와 보육 5개 영역(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안전·영양, 가족 및 지역 사회협력 등)으로 구성되는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 5과목과 선택과목 26과목 중 6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
- 보육실습에 관한 규정 구체화

바. 교육훈련시설

- 교육과정의 범주 및 교과목을 대학의 교과목과 동일하게 구성, 기존 38개 교과목을 25과목으로 축소하고 이수시간도 기존 1,000시간에서 1,036시간으로 확대
- 교육훈련시설의 위탁규정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교사수급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

사. 보수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
- 승급교육은 1·2급 승급시에 받아야 하는 80시간의 교육으로 전체 과목을 대학 교과과정과 통일성을 기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
- 직무교육은 시설장 및 교사가 매 3년마다 받는 40시간의 교육으로 하고, 시설장 신규과정 및 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 등 특별직무과정을 추가
 - ※ 과정은 대학 등 교과과정과 통일을 기하고 각 영역별로 과목을 일정비율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중복 방지

4. 시설 운영

가. 운영기준

- 가정보육시설의 명칭도 어린이집으로 통일하고 타 기관 오인 명칭 사용 불가
- 영유아 비율을 아동 수를 중심으로 변경하여 2세미만 및 2세아의 비율을 각각 10% 및 20%이상으로 규정
 - ※ 현재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는 것이 원칙 (정원별 반편성 기준은 지침에서 별도 정함)
- 상해·배상·화재·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규정
- 안전·위생·차량안전관리 등 규정 강화

나. 보육시설 위탁

- 위탁절차, 선정과정, 계약서 체결,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사유 등 명시
 -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항목은 수탁체의 공신력·재정능력, 보육관련시설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 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 포함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가능

- 기존 위탁체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재위탁 가능, 재위탁 심사항목은 일반위탁 심사항목에 준하되 당해 시설 운영실적에 가중치 부여

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 등을 포함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
-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라. 취약보육

- 취약보육 종류를 영아·장애아·야간·휴일·시간제·일시 보육 등으로 하고, 정부의 비용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 보육과정

- 보육과정은 별도의 보육과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바. 생활기록부

- 초등학교에 연계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20년간 관리·보관(유치원 규정 준용)

사. 평가인증

-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결정, 평가내용의 구체화

아. 건강진단

- 아동, 종사자 및 보육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구체적인 진단항목 명시, 조치 의무 등 규정

자. 급식기준

-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 시설 직접 조리 원칙, 위생관리 등 규정

5. 비 용

- 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대체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보육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서비스 비용, 종사자 교육 훈련 및 복지증진 등 내용 명시

6. 지도·감독, 보칙

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급 양성 교육훈련기관 지정, 보수교육 위탁, 보육교사 자격 및 시설장 업무 정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
-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평가인증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

나. 보육시설연합회

- 분과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규정을 정관에 위임, 영유아 권익 보호 등으로 기능을 재조정

7. 경과조치

가. 보육정보센터

- 종전에 위탁된 센터와 기존 직원은 인정하되 직원의 자격기준은 2년 이내에 갖추도록 규정

나. 보육시설

- 종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 인정하고, 시설 설치기준을 5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은 1년 이내에 각각 갖추도록 규정
- 기존에 임면한 종사자의 임면보고는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

다. 교과목,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

-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대학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과목은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
- 기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위탁받은 시설은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1년 이내에 시설장·직원의 자격요건 구비
- 기존에 받은 보육교사 등급 및 보수교육은 그대로 인정



“몸도 마음도 편하게 놀자”

김 지 혜 · 회원(갯골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있어야 역시 어린이집인가 봅니다. 휴가 기간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더니 너무 고요해서 “여기가 어린이집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 충남 홍성에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내려 오셨습니다. “행복한 보육교사, 행복한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보육교사 근무 환경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빠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올해 계획안이 안 나가요”라는 말에 놀라시더니만 결국은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네요.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 주세요!!

어느덧 아이들과 지낸지 4년째가 되어 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4년이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벌써 4년째야!’ 랍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3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즐겨 부르는 노래는 ♪ ‘여름 여름 여름 즐거운 여름’ 으로 시작하는 즐거운 여름, ♪ ‘커다란 수박하나 잘 익었나 퐁퐁퐁’ 하는 수박 파티 등등의 노래... 몇 년째 여름이 되면 부르고 있습니다. 매달 주제가 있고, 그 주제마다 하는 활동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 계획안을 아주 중요시하며 배워서 계획안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매달 또는 매주에 부모님들께 계획안을 짜서 보내드립니다. 요일별로 칸을 만들고, 활동별로 줄을 나누어 무슨 요일에는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적지요.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빈칸이 많으면 이상하고, 안될 것 같고, 나름대로 욕심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날 그 활동을 다 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교사 주도로 하거나, 수박 걸할기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그날 그 활동을 다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

책감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계획을 미리 짜니까 아이들의 그때 그때의 흥미를 지속시켜 주지 못하기도 했구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획안이 필요한 것일까? 그해를 보내면서 선생님들과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올해는 아이들과 활동을 같이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정해져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 색다르게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 등을 다루다보니 미리 계획을 짜놓고 지낼 때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반에 적용이 되지 않은 아이들과 오래 앉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교사 주도하에 계획안을 짰습니다. 대신 다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을 줄이고, 어린이집 주변에 산책도 자주 가고, 텃밭에도 가고, 마당에서 신나게 지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아이들에게서 요구가 생기더군요.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또, 평소에는 그냥 지나 갈 일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나름대로 관찰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여름을 주제로 한 활동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적어보았습니다.

(활동의 실제)

활동명 봉숭아 물들이기
준비물 봉숭아꽃, 명반, 비닐, 가위, 그릇, 찜을 막대, 나무젓가락, 셀로판테이프
활동방법

① 도입

여름꽃에 대한 이야기와 동화를 듣고 어린이집 화단에서 여름 꽃을 찾다가 봉숭아 꽃을 발견하였다.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기 위하여 꽃과 잎을 따는데 아이들의 ‘흰 꽃은 흰색으로 물이 들어지나?’ 는 물음에 색을 나누어 들여 보기로 하였다. (흰색 꽃, 붉은 꽃, 잎을 따로 나누어 그늘에 하루 놓고 말렸다.)

② 전개 - 다음날...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같이 준비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 교실에 빙 둘러 앉아 각각 그릇에 흰색 꽃, 붉은 꽃, 잎을 넣고, 명반을 넣어 돌아가면서 찜었다. 그런데 흰색 꽃을 찜은 아이들이 “어- 하얀꽃을 찜었는데 주황색 물

이 나왔네"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각자 가 찢어던 봉숭아를 손톱에 올려놓고 미리 잘라놓은 비닐을 덮은 다음 셀로판테이프로 감았다.(처음에는 비닐로 감아주었는데, 자꾸 빠져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였던 것이 생각나 셀로판테이프로 감았더니 잘빠지지도 않고, 묶을 때 보다 시간이 절 약되어 좋았다.)

③ 마무리

봉숭아 물이 잘들여지기 위해 물에 담그거나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함을 알고, 최소한 오후 간식 먹기 전까지는 빠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다.(약 2시간 정도)

평가 꽃 색깔에 관계없이 주황색으로 물드는 이유는 봉숭아꽃과 잎 등에 들어 있는 주황염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숭아 물이 드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염료로 인한 일종의 염색인 것이었다.

※ 아이들이 남은 시간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할까봐 한쪽 손만 들었는데도 여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 않고 있어야 진하게 들여 진다는 이야기를 하였던지, 잘 참는 아이들도 있었다. 물론 못 참는 아이들은 몇 번 이야기를 한 후 빼도록 하였다. 집에 갈 때 손톱에 물든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뒤로도 아이들이 집에서 봉숭아 꽃을 가져와 몇 번 더 물들이기를 하였다.

어린이집 화단에 심어 놓은 봉숭아로는 모자라서 집에 있는 꽃과 잎을 따오기로 했는데 기대보다 많이 따와서 너무 흐뭇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낸 뒤 부모님들께는 그 주 동안 지낸 일이나 아이들이 좋아했던 활동들을 적어 보내드립니다. 또, 그 주의 '알립니다'도 간단히 나갑니다.

〈한 주를 지내고 나서...〉

하늘반 18호

하늘반 이야기

2004. 7. 16 금

안녕하세요?

한 주 내내 장마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몹시 그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마가 그치면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서 걱정도 됩니다.

월요일에 아이들과 여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에는 여름철 놀이와 여름 날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 동화를 듣고, 아이들이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자고 해서 어린이집에 심은 봉숭아 꽃으로는 모자라서 집에 봉숭아꽃이 있는 아이들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날이 흐려 질수록 얼마나

걱정도 했지만, 미리 따 온 봉숭아꽃이 시들어서 미루지 않고 봉숭아 물들이기를 하였습니다.

또, 좀 서늘할 때 밖에서 얼음뭉 놀이를 했는데 그 뒤로는 날씨에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뛰어 노네요!

그런데 왜 비가 오면 귀신, 도깨비, 바다 괴물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조를까요?

다음주에는 병원놀이를 중심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 하늘반에서 알려 드립니다. ♡

1. 20일(화)은 병원놀이를 합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1일(수)은 7월 생일잔치를 합니다.
7월생 태어난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3. 24일(토)에는 제 2회 갯줄 어린이집 지원 연수를 합니다. 이날은 "아동놀이의 중요성과 교실내의 놀이 환경"이란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이날은 차라운행을 하지 않으며, 보육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미리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갯줄어린이집 하늘반에서...

사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계획안 없이 지내면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사가 아프거나, 잠깐 소홀히 해서 사전에 준비가 덜 되면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사도 아이들도 편하고, 즐겁게 놀기 위해 계획안을 미리 짜지 않기로 한 건데 계획안을 짤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계획안이 없으니 그 계획안과 더불어 다른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걸어 다니는 작은 책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것이기에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두렵고, 어렵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지내다 보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요. 처음이라 아이들과 해매기도 하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여성부 통합 검토

2004/08/19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혁신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 청소년 정책기능 조정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부가 정부혁신위의 안대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경우 현재까지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해 온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는 또한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대신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정부혁신위의 보고에 대해 관련 부처간 조정을 통해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혁신위의 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oomh@yna.co.kr]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노는" 단오 되찾기

- 방아골과 지역 단체들의 '조인트' 단오축제 취재기 -

황미혜 · 명예회원

버박이의 취재글 쓰기, 내 기억력을 시험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씻고 얼음물을 들이켜봐도 말 그대로 "시원찮다".

'삼복'은 다 지나가는데 '더위'는 여전히 갈수록 여름나기가 고행으로 다가온다. 한여름 땀방울 건더낸 버이삭이 제 고개를 숙이듯 이 여름 더위로 인한 짜증을 속으로 삭히며 지내는 나도 선선한 가을바람 불 즈음이면 철이 들어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건지.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방울이 땀거리로 스키 타는 이 무더위에 취재 부탁에 거절 못해 고개 숙인 나는 머얼리, 정말 머얼리, 우리 집과 정반대에 위치한, 그래서 같은 서울이건만 서울서 대전 가는 것만큼 시간 걸리는 방아골 어린이집·복지관을 찾았다.

취재 사유인즉 단오라는 민속절기를 지역행사로, 그것도 어린이집과 복지관, 지역 다른 조직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영감을 받아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어보고 지역내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볼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끌고루 다 타보는 것도 모자라 중앙버스전용차로 까지, 서울시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버스체계개편 이벤트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찾아간 그곳. 방아골 어린이집 오윤정 원장(늘 언니라 부르던 이를 이리 칭하니 좀 어색하고 쑥스럽다)의 안



좌로부터 손진숙 주임교사, 오윤정 원장, 안진 지역팀장

내를 받아 우선 방아골 복지관의 한진 지역팀장을 만나고 내 취재대상이 된 세 여인네와 증거사진 한 방 찍고는 어린이집 손진숙 주임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리 인터뷰를 준비한답시고 방아골 복지관 홈페이지를 둘러봤건만 단오축제에 대한 자료라곤 행사 개최에 대한 간단한 공지밖에 눈에 띄질 않아 또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취재를 하자니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가 쑥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우리네 아이들」 지면을 펴크 낼 수는 없는지라 그 비박대는 소리에 용케 적절한 답변을 해주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옮겨보려 한다.

그런데 아뿔싸. 어찌 된 노릇인지 녹음테이프에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서인가, 아님 내 녹음기가 아니어서 작동법에 미숙해서인가. 그런데 작동법 미숙이라기엔 녹음은 너무나 단순한 기교가 아니던가. 다행히 인터뷰하면서 수첩에 적어둔 것이 있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아이큐와 수첩에 개발피발로 적힌 암호문 같은 글들을 풀어 취재글이라는 격조 높은(?) 문장으로 승화시키려 하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감안하여 주시길.

지역주민과의 만남, 그 꼬투리를 찾아서

복지관이라면 으레 그렇듯이 방아골 복지관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그러나 틈을 메우고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 '지역이 사는' 것은 아니다. 매년 한 차례씩은 바자회나 음악회 같은 행사로 주민들을 만나고 후원금도 조성했지만 '지역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기엔 좀 약하다 싶었다. 그리하여 올해 활동계획을 고민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보자고 연 2회 지역행사를 마련해보기로 했다. 지역행사는 복지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법인에 속한, 동일건물에 입주해있는 4개 기관 -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자활후견기관이 각자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네 기관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소모적이라 통틀어 그냥 '방아골' 이라고 부르려나.

문제는 '꼬투리'였다. 지역주민들과 편하게 만날 '꼬투리'. 어린이날에 지역행사를 개최하면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이미 어린이날은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아동행사를 해오던 참이었다. 뭔가 다른 '꼬투리'가 필요했다. 열심히 찾아 헤



매단 중 신선한 '꼬투리' 하나 발견하였으니, 이름하여 단오. 지금은 그저 창포물에 머리 감기 정도로만 기억되는 단오가 실은 정월 대보름만큼이나 커다란 마을잔치날이었다니 지역주민을 한데 묶는데 이만큼 좋은 '꼬투리'도 없는 셈이다.

원래 단오는 옛 조상들이 모내기를 마치고 잠시 한가한 틈을 타 풍년을 기원하며 놀이를 즐기던 민속절기이다. 때는 음력 5월이라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더위와 전염병을 미리 대비하고자 여러 액막이 풍습도 전해 내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도령과 성춘향이 첫 대면을 한 것도 바로 이 단오날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니 그 옛적 단오는 지금의 크리스마스처럼 사람 들뜨게 하는 날이지 않았을까 싶다.

조금 늦은 감을 떨쳐버리기는 힘드나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둘러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단오의 유래부터 찾아보기 시작하여 그 옛날 마을의 풍년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하나가 되었던 마을잔치를 부활시키고자 애를 썼건만, 촉박한 일정에 처음으로 준비하는 단오잔치는 모든 것이 더디게만 느껴졌다. 과연 단오에 단오잔치를 할 수 있을까.

따로 또 같이 - 네트워크로 살아나다

네 기관에서 한 명씩 대표로 참석하는 기획팀이 진행의 부진함에 다소 힘이 빠져있을 무렵, 지역내 한 어린이집에서 매년 단오행사를 벌여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오윤정 원장은 공동주최를 건의했다. 방아골은 그곳, 꿈꾸는 어린이집과 접선을 시도했다. 꿈꾸는 어린이집 단오행사는 서울시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서 잠깐. 작년에 진행했던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에서 네트워크에 대해 학습한 바를 복습해보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참여범위 및 영역에 대한 합의, 참여 조직들에게 교환 가능한 자원과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네트워크는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하고 파트너 간에 힘과 영향력이 제대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되는 네트워크는 서로 독자적인 조직들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면서 정보공유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협력(cooperation), 분리된 조직이 불필요한 중복이나 조직간 갈등과 낭비를 피하고자 할 때가 조정(coordination), 마지막으로 분리된 각 조직이 단일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참여(join)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계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를 합작(collaboration)이라 한다. 자 그렇다면 방아골과 꿈꾸는 어린이집이 만든 네트워크 형태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 정답은 합작이다.

일단 방아골과 꿈꾸는 어린이집은 단오잔치라는 공통의 목적, 방학동 주민이라는 공동의 대상, 그리고 조직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교환가능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방아골은 네 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조직력, 지역적 기반을 자랑하였다. 반면 꿈꾸는 어린이집은 단오잔치를 해마다 해오면서 단오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행사 경험이 있었다.

또 도봉구 자체가 네트워크가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 꿈꾸는 측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단체에 꿈꾸는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어린이날 지역행사 공동주최로 안면은 있던 관계여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던 터였기에 서로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한 측면도 있었다.

하나의 공동행사를 위해 각 조직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내어놓으면서 비어있던 부분을 채우고 틈을 메우고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은 네트워크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쉬우리요. 이미 진도야 어찌 되었건 나름의 계획과 의미를 담고 준비과정에 있던 차였다. 500명 이상 규모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한 방아골 측과 아동과 학부모 중심으로 100명 규모 예상한 꿈꾸는 측의 기획안은 확연한 차이를 담고 있었다. 규모와 대상의 차이뿐 아니라 예산과 그로 인한 프로그램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한쪽은 단오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면서 일을 꾸려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도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꿈꾸는 어린이집에다 삼각산 재미난학교까지,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단체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회의는 조정하고 합의할 것들이 의외로 많아 시간을 많이 요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치면서 생략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확정된 기획안은 초



기에 부푼 꿈을 안고 기획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있었다.

주민들 함께 다 노는 날이라고 단오던가?

참여단체 수준에 따라 재정을 부담하고, 각자 맡은 곳에 홍보활동도 벌이면서 행사에 관한 모든 과정을 각 기관이 함께 하였다. 행사 당일 운영되는 각 마당도 조직별로 나눠 맡았다. 어디는 씨름을 맡고 어디는 비석 치기를 맡아 진행하는 식이다. 덕분에 다음에 또 지역행사를 벌인다 해도 어느 조직이고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행사준비 초기에 이미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준비주체들을 모아놓고 단오에 대한 사전교육과 민속놀이 시연 프로그램을 진행했기에 마당을 진행하는 것도 그다지 걱정될 바가 아니었다.

6월 27일 일요일, 날씨 맑음.

전날까지 비 오고 잔뜩 흐렸건만 참으로 오랜만에 이뤄지는 단오잔치여서 인지 하늘이 도와 화창하다 못해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원래 단오는 6월 22일 화요일이었지만 많은 단체가 함께 하다보니 각자의 일정에 맞추려다 제 날짜를 지나치게 되었다.

단오잔치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어 진행되었다. 운동장을 빌려준 학교측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단오잔치를 홍보해준 덕에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로 북적대는 행사였다.

먹거리 마당에서는 앵두와채와 쏙떡, 익모초즙을 시식하고 나면 그 옆 먹거리 장터에서 시식으로 감질난 입을 본격적으로 달랠 수 있었고, 놀이마당에서는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없이 씨름과 비석치기, 긴 줄넘기, 사방치기가 한창이었다. 참여마당에서는 옛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사악한 것을 피하려고 오색 실로 만들어 팔에 걸고 다녔던 실팔찌인 장명루를 만들고 창포물에 서로 머리를 감겨주고 수건을 천연염색으로 물들이고 단오부채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방아골 어린이집에서 담당한 천연염색마당은 마당 흥미도를 알아보는 스티커 붙이기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양 편 감나무에 긴 줄을 매달아, 운동



장을 가로 지르며 바람에 나부끼는, 저마다 이름이 적힌 노란 치자물의 손수건들은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덕에 운동장 여기 저기 나무마다 줄을 매달아 손수건을 널고도 모자라 들고 다니면서 염색이 마르게 할 지경이었으니, 그림책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의 두 쪽을 가득 채운 그 빨래들이 생각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모르겠다.

준비해간 치자염색 손수건이 1천장. 행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남은 손수건은 150장 정도. 얹체처럼 한꺼번에 여러 개 가져간 사람도 있을 터이고 일추 주취단체들이 모여 셈을 해보니 600 명 정도가 왔다 간 듯 하다. 이번 단오축제는 대 성공이다.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감독으로

이제까지 복지관 내 지역행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보조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변부에 머물렀음은 사실이다.

지역행사를 할 때면 준비작업 일부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담도 전혀 없었고, 물론 회의 진행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다. 그저 오리고 만들고 붙이는 일 거리를 받아서 그대로 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인지 복지관과 보육시설의 업무는 별개라 여겼으며 이번 단오잔치 기획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손진숙 주임교사는 고백했다.

단오잔치는 그녀가 난생 처음 기획팀에 결합한 사업이었다. 다른 기관들은 서로 왕래도 하면서 안면도 있었지만 손 주임 본인은 왕래도 없었고 행사 준비경험도 없었다. 단오잔치 준비가 실무진에서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대표도 원장이 아닌 주임교사가 맡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해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을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긴 원장의 신뢰와 자신을 한 없이 지지하고 "힘들지?"라며 위로의 한 마디도 시시때때로 건네주던 동료교사들의 마음 덕분이었다. 또 보육교사인 자신을 배려해 낮잠시간과 퇴근 후로 회의시간을 잡았던 기획팀의 마음씀씀이도 고마움으로 작용했다.

매주 있는 교사회의에서 단오잔치를 논의하고 그도 모자라 간식 먹으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은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천연염색마당도 교사회의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자



료를 뽑아 결정한 것이다. 교사회의에서 다시 행사에 대해 준비과정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어린이집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린이집 자체적인 활동 마련도 가능케 했다. 큰 애들을 빼면 단오잔치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라 어린이집에서 단오 당일 독자적으로 단오활동을 진행해본 것이다. 행사 준비하면서 단오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쉬웠다. 창포물에 머리도 감아보고 단오 부적도 직접 만들었다. 오후에는 간식으로 쫄면, 수리치떡을 먹었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단연 환호성이다.

원장이 아닌 교사가 준비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행사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다. 물론 준비과정에 주체로 참여한 손 주임의 자신감은 날로 살찌고 키가 커갔다. 그 날 인터뷰를 하는 내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녀의 얼굴이 내게 말해줬다. 분명 행복한 추억이었고 즐거운 과정이었으리라. 물론 힘들었던 순간들이 양념처럼 군데군데 있었겠지만.

잠시잠깐 알아볼 듯 말 듯 스쳐 지나치는 단역배우는 어렵게 외출 대사가 있는 것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한 눈에 알아차릴 만큼의 압도적인 표정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냥 감독의 신호에 누구는 걷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있으면 된다. 그러나 크게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단역배우가 갖는 기쁨은, 영화를 찍는 내내 잠을 못 자 가며 밥을 굶어가며 그 긴 대사를 줄줄이 외우고 그 미묘한 감정을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내고 수 없는 NG 소리 들어가며 머리 굵적이던 주연배우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손 주임의 기분이 단역배우에서 주연배우로 지위가 급상승한 자의 기분과 같지 않았을까.

방아골과 단오축제의 뒷 야그...

방아골 어린이집에서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들과 공동의 행사를 벌일 수 있던 데에는 또 그만한 장치도 있었다.

지역행사로 공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1일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방아골 어린이집 복무규정에 당당히 제시되어 있다. 이번 단오잔치도 일요일에 있었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1일 휴가를 사용한 교사의 빈 자리는 보조교사가 일정 부분 메워준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방아골 어린이집은 각 반마다 보조교사가 한 명씩 있어서 두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맡는 셈이다. 갑작스런 담임교사의 휴가에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 외부 대체교사가 한 반의 모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늘 보아왔던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크게 동요되는 바 없이 하루

를 보낼 수 있다.

우리창 청소나 장난감 세척 같은 손 많이 가는 일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중고생들이 와서 해결해주어 교사들이 보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내가 간 그 날도 동방신기 같은 신예가수들의 머리모양을 흉내낸 남학생들이 오윤정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유난히 할 일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평소의 활동범위보다 조금 확대된 활동을 하려면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분담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하다. 방아골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서 가능한 업무 지원체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직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되면서 애초 방아골에서 염두에 두었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아동 중심으로 행사가 치중되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편 공동주최가 아니었으면 그 깊은 단오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작은 것부터 점차 키워가는 것, 행사 주최의 요령이자 네트워크의 주의사항이기도 하다.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당장 추석을 앞두고 바로 옆 동네 어린이집과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한 공간에서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같은 프로그램을 각자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해도 고민의 깊이와 활동의 폭은 훨씬 더해지지 않을까. 그저 교재와 교구를 교환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즐거운 네트워크는 시작된다. 다만 너무 뜨거운 논의 때문에 교사가 한밤중에 귀가하는 건 피하고 볼 일. 회의 때문에 핸드폰도 꺼놔다가 서울 방학동에서 안양 신흠집으로 도착하면 밤 12시여서 본의 아니게 남편의 오해와 불만을 사야만 했다는 손진숙 주임교사의 에피소드가 또 다른 시설에서 반복되면 아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단오에 대해 유식한 척 해보기

단오(端午)는 음력 5월 5일로, 수릿날·중오절·천중절·단양이라고도 한다.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왔는데, 단오행사는 북쪽으로 갈수록 번성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며, 남쪽에서는 대신 추석행사가 다채롭다. 단오는 조선 중종 때 설날·추석과 함께 삼대 명절로 정해진 적도 있었다.

단오날엔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 나물로 떡을 해먹기도 하고 쪽으로도 떡을 하는데 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와 같아서 수리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민간에서는 이 날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물가에서 물맞이를 하거나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한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여 창포뿌리를 잘라 단오비녀를 머리에 꽂았다. 가장 양기가 왕성한 시각인 오시(午時)에는 익모초와 쪽을 뜯어 여름철 몸을 보호하는데 썼다.

궁중에서는 단오날이 되면 일종의 청량제 구실을 하는 제호탕(醃醃湯)과 구급약으로 사용하는 옥추단(玉樞丹), 벽사에서 기인한 애호(艾虎;쑥호랑이)를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 관상감에서는 천중부적(天中符籙)을 만들어 대궐안 문설주에 붙였다. 재액을 막아 준다는 이 부적은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서도 붙였다. 또한 단오날 임금이 전주·남원에서 진상한 부채를 신하에게 하사하였는데 이것이 단오부채이다. 집단적인 민속행사는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지내는 단오제(端午祭)가 있다.

이처럼 단오의 여러 행사는 벽사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관습이 많고, 더운 여름에 신체를 단련하는 씨름과 그네뛰기 등의 민속놀이가 있다.



구름놀이

김경해

부산지부회원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한태희 글·그림

아이세움 출판사 - 꼬마그림책방 011



정말 오랜만에 서점을 찾았다.

딸 둘과 조카 1명. 책 구경도 하고 소개할 책도 고를 겸해서.

어린이전문 서점이라 셋을 데리고 가봤다.

애들은 이 책 저 책 본다고 정신이 없다.

고른 책 하나를 사 주기로 했더니 더한가보다.

이 책은 조카가 고른 거다. 두 번을 바꿔가며 고르더니 마지막까지 이 책을 사고 싶단다. 그래 믿고 샀다. 큰딸은 「마녀 위니의 요술지팡이」란 마녀 위니 시리즈를, 둘째 딸은 「알록달록 동물원」이란 자기 수준의 책을 골랐다.

「구름놀이」 이 책은 한태희씨가 만든 책이다. '누군가? 하는 사람은 「손바닥 동물원」, 「불꽃놀이」, 아니면 그림만 그린 「도술산 선운사」, 「열두 띠」 등 이 사람이 그린 책을 한 두 권쯤은 봤을 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 「도술산 선운사」란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책에 마음이 끌리기도 했나보다.

맑은 하늘에 떠 다니는 구름.

그 구름이 꽃이 되고, 나비되고, 새가 되고.

토끼가 쫓아가고, 호랑이가 쫓아가고, 솜사탕이 되고.

파란 하늘이 참 시원한 느낌이다.

거기에 구름을 잡고, 구름과 노는 손!

마지막 솜사탕을 먹는 콧엔 아이 얼굴이 나온다.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을 먹음으로 구름과 하나 되어 노는 아이.

비가 와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만 구름놀이는 계속된다.

나도 이럴 적 구름 보며 많이 놀았는데... 책을 보고 있자니 어린 적 기억이 난다. 바위에 누워, 풀밭에 누워 하늘 보며 온갖 것들을 - 용, 개, 물고기, 꽃등 - 만들고 노느라 먼 내가 하늘 위로 빨려 올라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늘이야 언제나 좋지만 특히 가을엔 하늘이 더 높고, 구름은 더 선명해 보여 구름놀이 하기 좋을 듯.

다가올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해봐야지-





가슴 뭉클한 자매의 사랑... 『우리 언니』를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조지영 · 서울지부 회원

정겨운 '우리 언니' 라는 제목!!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반 아이들에게 보여 줄 절호의 찬스, 기회! 그 행운이 나에게도...오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동화를 보여주는 것은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언니! 언니!' 부르며 조잘 조잘 언니 뒤편 쫓아 다녔던 내 자신을 떠올리며 이 푸근함을 아이들과 함께 느껴보는 흐뭇한 시간이었다.

선생님 손에 쥐어진 동화책을 보며 아이들은 가우 똥- 가우 똥

'우.....리.....언.....니??' 우리 초록반 아이들은 [6세 11명, 7세 10명]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8명에 불과했다. 이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볼지, 어떠한 생각을 할지 너무나 궁금했다. 혼자서만 유아독존을 지켜온 대다수의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였다.

"자, 흥하고 코 풀어" 언니의 사랑은 봄 햇살처럼 포근하기만 하다. 마치 엄마처럼 동생을 챙겨주며 돌봐주는 언니. 그런 모습들을 본 아이들은 '어- 저 친구에겐 엄마가 없나봐-! '언니가 다해주네...' '아빠 어디 가신거지? 주인공인 두 자매만 있는 것이 불안하였을까? 주위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런 언니의 보살핌이 귀찮기만 한 동생. 언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동생의 갑작한 반항...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말았다. 조용히 숨어버린 동생과 함께 조용히 동생을 따라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숙여갔다. 옆 친구의 조그마한 웃음소리도 쿡쿡 찌르며... 손가락으로 조그마한 입술을 가리며 '쉬--잇--!!' 아이들과 함께 몸을 웅크리며

나의 목소리도 소곤소곤.

동생을 찾아다니다 엉엉 울고 마는 언니의 애통함을 보고서는 '언니! 옆에..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 하며 동생을 잃고 울고 앉아 있는 언니에게 말을 건네며 힘을 주는 아이들.

꽃밭에 숨어 있던 동생이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손수건을 내밀며 언니를 달래는 동생. 아이들은 동생이 되어 '흥-! 흥-! 쿵-! 쿵-! '울지마-!

어떤 상황에서든 한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힘을 주는 우리반 아이들...

책 겉 표면에 있는 두 자매의 돛자리(?), 이불이 되어 주었던 꽃 이름을 너무나 궁금해 한 아이들... '꼭신한 이불 같다.' '따뜻하겠다.' 아이들도 책 겉 표면에 두 자매의 마음을 표현한 하얀 데이지 꽃처럼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자매의 정을 더욱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유아 23% 천식, 18% 아토피 환자"

2004/08/19

국내 유아(0~4세) 5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6명중 1명 꼴로 아토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이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천식을 앓은 유아는 모두 67만4천명으로 전체 유아의 23%에 달했으며, 아토피 질환에 걸린 유아도 52만7천명으로 전체 유아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집계된 전체 천식 환자 201만명과 아토피 환자 116만명 가운데 유아의 비율은 각각 31.5%와 43.3%에 달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유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8월말 종합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초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환경단체 및 보건의로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워크숍을 열어 환경 및 보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고 정 미

인천지부 회원 / 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 / 유아국악강사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라는 제목으로, 미약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몇 번의 글을 올리게 될 고정미라고 합니다. 우선 ‘놀이’에 대한 저 개인의 생각이 앞으로의 글의 내용상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생각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느끼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랑을 배워갑니다. 제대로 온몸을 던져 놀아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그저 그런 곳이고, ‘나’도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도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저 그런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신나게 뛰어 놀고 나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의 표정엔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노는 녀석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 잘 노는 녀석을 좋아합니다.

잘 노는 녀석들은 마냥 똑같은 놀이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그 무언가를 발견하려합니다.

잘 노는 녀석들은 규칙을 지킬 줄 압니다.

그래야 재미있게 놀 수 있음을 알고 있죠.

잘 노는 녀석들의 표정은 살아있습니다.

눈동자도 반짝반짝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잘 노는 녀석들은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고 씩씩합니다.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노는 녀석들은 스스로 놀 줄 압니다.

충분히 놀면서 ‘자율성’은 덤으로 얻는 것이지요.

잘 노는 녀석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래와 놀이’ 앞에 ‘옛’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적 놀이’라는 의미에 반하는, ‘전통놀이’와 ‘민속놀이’를 아우르는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의 천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천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이들의 삶에 불협화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편적인 모습을 봅니다.

어른들의 모습

오늘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잘 먹어야 하는 것이지는 몰라도...

얼마나 더 잘 입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더 큰집에서 살아야 하는지는 몰라도.....

더 큰 차, 더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아주 많이 바쁩니다.

아이들의 모습

오늘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지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침뱉기는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땀나는 대로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만화영화나 컴퓨터게임을 하며 땀을 흘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각과 청각과 손가락을 자극하며 내 대신 놀아주는 것들로부

터 삶의 환희를 얻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게 귀찮게 하지 않고 암전히 잘 논다고 칭찬도 받아가면서...

아이들의 천성이 바뀌고 있나요?

그렇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게 암전히 앉아서 내 대신 놀아주는 것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땀을 흘렸던 아이들이, 그 놀이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난 작은 다툼에도 참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썩썩거리며 자신을 전혀 통제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관계들을 맺다보니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놀이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놀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극히 비자율적인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도 '성적' (지적수준의 향상)이라는 명제 앞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버리고 용서되어버리고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나가 놀아라!'에 담겨있는 교육철학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온몸으로 세상을 부둥켜안고 뒹굴며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인간을 위해 힘쓰는 바람직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온갖 것들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메기면서 다 파헤쳐대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몇 사람씩 칼로 찔러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어른들이 되지 않겠지요.

물론 아이들이 편하게 나가 놀 수 있는 환경들이 별로 없습니다. 골목은 이미 차들에게 정복당했으며, 마음 놓고 놀게 할 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고, 또래들도 별로 없고, 같이 놀아주기에는 바쁘고 기운도 딸리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옷을 더럽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달갑지 않고..... 어렵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딪히는 문제들을 자꾸만 자꾸만 극복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마음 맞는 여럿이서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놀이'에 대한 입장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무더운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놀이의 내용들을, 인천생협 예술 어린이집의 강나라(꼬꼬)선생님께서 간단하게 글을 써주셨으며, 이현주(꽃별)선생님께서 몇 가지 나무에 얹힌 이야기를 자료로 뽑아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놀이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저로서는, 그 놀이가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녹아나고 확장되는 과정들을 알 수 없기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께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욱 비중을 두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아이들이 어른들의 휴가에 맞춰 자연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놀이와 관련된 사건들, 풀숲에서의 곤충들과 관련된 사건들, 시원한 밤에 명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구수한 옛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

나무 노래

가자 가자 감나무 / 오자 오자 옷나무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 방귀뽕뽕 뽕나무
대머리 깎아라 대나무 / 참아라 참아라 참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 입 맞추자 쪽나무
앞어졌다 엄나무 / 자빠졌다 잣나무
귀신쫓는 복숭아 나무 / 낮에봐도 밤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 따끔 따끔 가시나무
달가운데 계수나무 / 서울가는 배나무

깔고앉아 구기자나무 / 그렇다고 치자나무
평의 사촌 닥나무 / 앵두아저 앵두나무

.....

많은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말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이름이 재미있게 표현되어있어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들도 흥미 있게 배워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 휘모리장단..등등 여러 가지 장단으로 바뀌서 불러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특히 위의 나무노래가 익숙해지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해서 놀아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앞부분의 노래를 하면 그에 맞는 나무 이름을 아이들이 알아맞히며 노래를 하는 것이지요. "가자 가자" 하고 메기면 "감나무"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노래를 익히다가 바깥놀이를 갔을 때,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됩니다. 나무의 이름과 여러 가지 색깔과 생김새와 나뭇잎과 길이와 폭과 나뭇잎의 흔들림...등등 별 관심 없었던 것들이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폭이 넓은 나무에 술래가 얼굴을 대고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고 하면 더욱더 깊은 관계 형성이 되겠죠. 낮고 올라가기 쉬운 나무가 있다면 한번 올라가 보는 모험도 해보고, 조심조심 벌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뛰어내리기도 했다면, 나무에 등을 대고 서서 말뚝박기 놀이라도 했다면.....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평생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 나무와 나와 또래들이 하나가 되어 신나는 놀이를 하면서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는데, 어른이 되어 그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피약벌 아래에 잠시 서 있다가, 큰 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로 가서 쉬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몇 가지의 나무이야기를 뒤에 별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었더니 참 재미있어하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다음기회에.....(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달팽이 노래

하마 하마 춤춰라
느 할애비 개똥발에 장구치고 논다
요뿔내고 춤춰라 조뿔내고 춤춰라
술술이 나오너라

.....

하마는 달팽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더듬이의 모양이 꼭 장구채와 비슷해서 장구 치고 논다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래 하나로 아이들은 달팽이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위의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로 달팽이가 더듬이를 내밀었다면 그 짜릿한 감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와! 진짜 뿔을 내밀었어!" 눈은 커지고,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달팽이에게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감정까지 느낍니다. 7살 난 딸이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댔는데 위의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소라소라 춤춰라....." 몸뚱이를 내밀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아무말없이 소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나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행동이 아닌, 그저 몸뚱이를 한번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이와 노래는 어미와 자식 같은 관계라고 하더군요. 아이들 놀이에 노래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경험해보셨나요? 비 억압적인 상황에서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핑핑 장서방' 이나 '쥐야쥐야' 노래로 잠자리나 매미..등등 아이들이 많이 보았던 곤충이름을 넣어서 불러봅니다.〉

(매미매미매서방) 어디에서 사나?

뭘 먹고 사나?

누구하고 사나?

(매미)는 어떻게 우나?

(매미)는 어떻게 나나?

매미를 직접 잡아본 아이들은 매미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땡땡" 이외에도 매미가 우는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본 아이들은 참매미와 말매미와 쓰르라미가 우는 소리가 다를 수 있음을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미우는 소리를 흉내낸 소리를 자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왜 암컷은 울지 않고 수컷만 우는지? 우는 것과 짝짓기와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무에 붙어 무얼 먹고 사는지 알아보고, 땅속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세상에 나와 잠깐 살다가 죽어 가는 매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보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매미를 잡아서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런 경험들을 다른 아이들과 나눠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 무엇보다 낮은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으려다 매미가 날라 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숨을 죽이며 날라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가갔는데!

두꺼비집 짓자

두꺼비집 짓자 둥글둥글 두꺼비집 짓자
두꺼비 집 짓고 황새는 물고이고
두들겨도 짓고 만져도 짓고
두꺼비집 짓자

수건돌리기

6살 정도면(5살 후반에도 가능) 놀이의 방법이나 규칙 등을 이야기해주고,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어른들이 옆에서 놀이화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습니다. 놀이방법은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
수건 없이 수건돌리기 형식의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술래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짚어주면서 "오리" "오리" ...하다가 "거위!" 하면서 한 명

의 머리를 짚어주게 되면, 술래는 도망가고 새로운 술래("거위!" 하면서 머리가 짚어졌던 친구)가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건돌리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오리와 거위 발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오리를 보리로 발음하는 바람에 "보리" "보리" ... "쌀!" 이 된 적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밖에 나가 놀기가 어려우면 집 안에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위의 놀이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수건을 들고 노는 게 버겁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건을 통해 놀이의 재미가 더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 건너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니? 마당까지 왔다
.....

어디까지 왔니? 다 왔다!

.....
맨 앞에 있는 앞 대장을 '다리세기놀이'로 뽑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어깨나 허리를 잡고 뒤로 길게 늘어섭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먼저 앞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대장만 눈을 뜨고 나머지는 눈을 꼭 감습니다. 그리고는 앞 대장에게 어디까지 왔냐고 물어봅니다. 앞 대장이 "다 왔다!" 하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앞이 잘 안보이고, 앞사람을 의지해서 조심조심 가야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이때 앞 대장이 "다 왔다!" 라고 하면, 눈을 뜨면서 목적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함성을 지르게 되며 큰일을 성사시킨 듯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눈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여기저기로 이동할 때, 위의 놀이를 하면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저절로 한 줄 기차가 되기 때문에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 씨동무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렸을 적 친구들과 등·하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어렸을 적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역사와 문화와 지리등의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어른과 아이가 이야기 하나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겠지요. 특히 이빨을 빼야한다거나 등등의 어려움에 접했을 때 선생님의 어렸을 적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프지 않고 괜찮다고 백 번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혹은 둘이서 혹은 여럿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다니다가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에서 놀아라! 하면서 앉는 것입니다. 장단을 맞추면서 여럿이서 호흡을 맞춰 한꺼번에 같이 앉아야 넘어지지 않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5세 정도는 선생님의 도움이 약간은 필요하며 두 줄씩 부르는 것보다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가 있는 줄만 노래를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 좋겠더군요. 노래가사가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바깥놀이 갈 때 하면 더 재미있구요.

권고사항:

초등학생들도 바깥에서 길을 오가면서 하니 아주 좋아합니다.

쑥쓰러워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오가면서 놀아보 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엉덩방아도 찢어보고 다함께 넘어지기도 하면서 신나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꼬꼬 선생님이 써주신 생활 속에 아이들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놀이의 내용들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자유놀이 시간이었다.

그럼 그리는 아이들, 소꿉놀이, 공룡놀이, 인형놀이 하는 아이들..

제각기 다른 놀이를 하며, 한 아이가 선창을 한다.

"편득아 편득아 찻뜨찻뜨-- 뭉치고 살았니 찻뜨찻뜨--

오뉴월 염천에--"

아이들은 '찻뜨찻뜨'를 흥얼거리며 놀이를 계속한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00야, 찻뜨찻뜨 뭐하구 놀았니? 찻뜨찻뜨 바다에서 찻뜨찻뜨 물놀이하고...찻뜨찻뜨,,)

'찻뜨찻뜨'가 재미있는지 고개와 어깨를 들썩이며 좋아한다.

마치 한가로운 오후,

할머니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연상케 한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우리 노래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어떤 활동에 몰입하면서 베어져 나오는 노래, 행동들은 참 친숙하다.

바깥놀이 시, 오솔길을 기다랗게 줄지어가며 나무를 안아보고 만져보며 나무 이름대기도 해본다.

그리고 '나무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나무이름 대신 꽃이름을 넣어 부르기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자진모리장단을 기존 그대로 익히는 것보다

노래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익숙해지도록 베어지도록 하는 과정까지

아이들에게는 참 설레이는 시간들이다.

물론, 배움(앎)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노래와 놀이에 심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갑갑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것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장단, 우리노래, 우리놀이를 배움(접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문지기놀이와 꼬리잡기를 하기로 했는데...(가장 좋아 하는 놀이이다) "꼬리 잡으러 가세!" 소리에 모두 움찔하여 한바탕 웃고 나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

나무 이야기

감나무 - 오상, 오색

감나무는 잎은 글을 쓰는 종이가 된다 하여 문(文)이 있고 나무가 단단하여 화살촉으로 쓰였다 하여 무(武)가 있고, 과일의 겉과 속이 똑같이 붉어서 표리가 동일하므로 충(忠)이 있으며, 노인도 치아 없이 즐겨 먹을 수 있어 효(孝)가 있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나뭇가지에 버티어 달려 있으므로 절(節)이 있다 하였다. 이것이 '문무충효절' 감나무의 오상(五常)이라고 했다. 또 목질은 검고(黑), 잎은 푸르며(靑), 꽃은 노랗고(黃), 열매가 붉고(赤), 말린 꽃감에는 흰 가루(柿霜)가 나오므로 이것을 일러 감나무의 오색(五色)이라고도 했다.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믿어서 감나무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금기했었는데 특히 여자가 올라가는 것을 더욱 금했었다. 또 감나무를 태우면 7대가 가난해진다고까지 했다. 오뉴월에 감꽃이 떨어지면 부녀자들이 감꽃을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면 아들을 낳는다는 주술적인 민속도 있다.

계수나무 - 배

옛날 영웅 <오다스동굴>은 계수나무와 들매나무로 배를 만들었는데 들매나무의 배는 무거웠으므로 계수나무의 배만 애용했다 한다.

어느날 밤 배를 매어둔 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머리칼이 긴 여자와 곱슬머리의 여자가 엉켜 싸우고 있었다. 머리칼이 긴 여자가 "너는 매일 밤 고기잡이에 데리고 나가 귀여움을 받으니 만족하냐? 나는 언제나 육지에 올려져 마르고 여위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분해하므로 그 오다스동굴은 소리지르는 여자를 칼로 베었더니 여자는 들매나무의 배가 되면서 두 동강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곱슬머리 여자도 상처를 입은 채 계수나무의 배로 되돌아갔고 그는 들매나무 배를 불태워 버리고 다시는 들매나무로 배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이것은 수고스럽게 가라앉는 무거운 들매나무로 배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적인 전설인 것이다. 그래서 배에도 혼이 있다고 믿어 정월과 시기에 맞추어 제물을 차려 제사 지내고 무사를 비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 풍속은 비단 아이누뿐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있는 공통된 숭신사상이라 할 수 있다. 또 아이누는 계수나무를 하나의 수호신의 나무로 받들고 있는데 옛날의 많은 전설에서 비롯된 신앙 같은 신화 때문이라 한다.

대나무 - 영적인 나무

대나무는 순절 충신의 상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는 민중 정공이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자리에서 돌아났다는 혈죽의 유래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나무를 신성시한 민속을 살펴보면 심장생의 하나로 삼았고, 영수인 호랑이가 대숲에 사는 것으로 믿어 많은 그림에도 묘사되어 있다. 결혼식 때 초례상 위에 쫓대와 함께 송죽을 양쪽 병에 꽂아 놓고 청실홍실을 걸어 연결하는 것도 신성과 장수, 번성을 기원하는 뜻이 함축 되어 있다. 또 대나무가 많이 나는 남쪽 지방에서는 출산하면 금줄에 솔잎 대신 대나무잎을 원새끼중에 끼우며 여수지방에서는 금줄 대신 대나무장대를 문에 비스듬히 대각으로 세워서 이를 대신한다. 이때 황토를 문 안에 5-6군데 한 줍씩 깔아 부정을 막는다. 또 출산하면 송죽을 문전에 달아두기도 한다. 따라서 대나무가 귀신을 쫓는 제액의 주술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무당이 굿할 때 신장대도 주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영수이므로 강신이 잘 된다고 믿고 있다. 성황신대도 대나무로 만들며 죽은 영혼을 달래는 굿을 할 때는 극락의 12대문을 대나무로 만든다. 그래서일까 대나무로 만든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면 말라서 죽는다고 믿어 금기로 삼고 있으며 방고래 밑으로 대나무 뿌리가 뻗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어서 싫어했다. 중국에서는 서조인 봉황새는 성인이 세상에 나올 때 나타나서 오동나무에 살면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이 모두가 신령한 것들로서 혼치 않음을 뜻하는데 대나무는 60년을 주기로 하여 개화결실하면 죽는데 음양설에 의거하여 60년을 서조(상서로운 정조)라 하여 말한 듯하다고도 풀이하고 있다. 전북 부안지방에서는 이중국의 전설에서 비롯된 듯 대나무가 드물게 개화결실하면 풍년의 징조라 하여 좋아했다 한다. 대나무는 열대와 아열대에 약 40속 600종이나 되는 대가족인데 개화하는 것이 일정치 않다. 조릿대류는 5-10년이면 개화결실하고 솥대나 반죽은 60-120년을 1주기로 개화하는 것도 있으나 다만 개화하면 말라죽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전남지방에서는 대나무 숲이 말라 죽으면 나라에 큰 흉사가 생긴다는 옛적부터 전해오는 전설을 믿고 있으며 또 대나무 숲이 마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지방도 있다.

작은 마을 평동엔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서은희 · 회원/평동어린이집 원장

평동은 수원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수원역 뒤편에 자리한 이곳은 개발이 덜 되어 70년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이지요. 이 마을 한 귀퉁이에 평동어린이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옛 평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평동어린이집은 앞에 마당 있죠,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옥상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지만 마루가 있는 아담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걸고 있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난 6월, 저는 지역 여성단체인 수원여성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영상교육' 강좌를 들었습니다. 평상시 배우고 싶었던 교육이었기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이 교육을 받으며 저는 평동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인 1조가 공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에 대해 이궁리 저궁리하다 조원들과 평동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영상에 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주제를 잡게 된 계기는 얼마 전 받았던 인권교육의 영향도 있었고, 평동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이 주제를 비켜가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감도 한몫을 했지요.

영상은 인도가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은 현실과 비행기 소음, 이 두 가지 주제를 큰 틀로 묶어서 움니버스처럼 구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작은 마을 평동엔, 길이 있다. 그러나... /

작은 마을 평동엔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이 중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인 '작은 마을 평동엔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입니다. 제목을 보니 제가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감 잡으셨지요?

수원시에는 예전부터 공군 비행장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옛날 지금처럼 개발이 되기 전 비행장은 수원의 외곽에 해당되었었지만 땅이 모자랄 지경으로 개발에 개발을 거듭한 지금의 수원에서 비행장은 주거지역

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평동은 비행장이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최고 속도를 내는 바로 그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지요. 하루에도 수 십 차례 뜨고 앉는 이 비행기의 소음은 나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인지를 시험합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전화 통화마저도 불가능한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은 뛰놀고, 먹고, 낮잠까지 잡니다.

컻속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비행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당장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하는 문제라나 어쩐다나...)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마련할 것 같았습니다.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소음 측정을 해 준다고 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아마추어 기자들도 비행기가 어린이집 상공을 날아갈 때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였지요.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기계를 작동 시켰더니 90dB부터 수치가 측정되더니 비행기가 우리 어린이집 바로 위를 날아갈 때는 110dB이 측정되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이며, 85dB를 넘으면 불쾌감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 이상이 되면 귀에 통풍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진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소음에 노출이 되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실되거나, 불면·초조·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승되고, 위액분비 저하·호르몬분비 이상 등 생리적인 영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옥상 위에서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실내에서 측정하면 이보다는 낮게 측정될 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상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소음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실내 소음은 일상적인 아이들 소음과 비행기 소음이 합쳐지면 옥상에서 측정한 수치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비행기들이 더 많이 뜨고 앉습니다. 날 좋은 날 마당놀이이라도 할라치면 '아이들에게 귀마개라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오히려 햇볕 쬔 날보다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런 날엔 비행기가 잘 안뜨니까요.

이번에 제작한 영상물을 부모님들과 함께 시청하고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대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누구 말대로 공군비행장 이전이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집으로 흡수되는 소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음창을 설치하던가, 방음벽을 설치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맑은 세상 아이들 이야기

안 미 경 · 부산지부회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독학 영어 실력

집에서 영어 비디오를 보고 온 민석(5세)의 대화

항상 일찍 등원하는 민석(5세). 아침밥을 먹으면서 유창한(?) 독학 영어 실력을 발휘한다.

수박 : 민석아, 국에 말아줄까, 맨 밥 줄까?

민석 : (곰곰이 생각하다가) 음~ 아~ 밥 (최대한 혀를 꼬아서)주세요.

(여기서 알밥이란 맨밥을 말함)

민석 : (밥을 받은 후)

땡꾸!

한참을 웃고 있는데 윤하늘(4세)이 들어오고, 알밥을 먹고 있던 민석이가 하늘이를 반가이 부른다.

민석 : 하늘 ~ 윤!!

이모들 : 하하하, 대단한 영어실력이네~

오줌싸개 다은이

달콤한 낮잠을 싹껏 자고 일어난 다은이(4세), 이모들을 부른다.



다은이 : 양과, 수박이모~ 내 오줌쌌지롱~

이모들 : (기가 막혀하며)

정. 다. 은!!! 뭐가 자랑이라고 부르노!

빨리 그릇 들고 저기 가서 소금 얻어 온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다은이, 그릇하나 들고선 신발 챙겨 신고 옆 건물에 있는 영아반으로 소금을 얻으러 간다.

다은이 : 할머니, 할머니 수박이모가 소금 달래요!

(마치 심부름이라도 온 듯 그릇을 내민다.)

할머니 : (영아들과 함께 자다 금세 일어난 얼굴로)

그래, 다은아 그릇 놔두고 가거라!

다은이 : (아무 생각없이 그냥 돌아와선)

이모~ 할머니가 나중에 갖다 준댔지롱~

이모들 :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다은이를 보고)

아이고~ 시킨 우리가 잘못이다.

못말리는 엽기남 윤하늘 (4세)

매주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교사, 부모들이 함께 청소를 한다. 이날도 어김없이 점심을 함께 먹고 걸레질을 하는데, 한 녀석이 땡땡이를 치고 있다.

청소 감독이셨던 상흠아빠, 한소리 한다.

상흠아빠 : 누가 청소를 안하노~

어이! 윤. 하. 늘! 빨리 걸레질 해라~

하늘이 : 니가 해!!

상흠아빠 : 멍 ---



함께 일하는 교사를 통해 배운 아이 사랑법

이 화 숙 · 희망어린이집 노랑반 교사

노랑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 아이들을 다루는 법, 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법. 특히 같이 일하는 이수경 선생님의 사랑법을 배우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교사들의 보육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

잘못했을 때 무섭게 혼내고 야단치던 일들, 사랑하지만 조금은 권위를 가지고 예뻐했던 일들.

그런데 노랑반을 이끄는 선생님은 무섭게도 안하고, 혼내지도 않고, 그저 사랑하고 받아주면서도 아이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다.

그동안 질서니, 교육이니, 훈련이니,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는 노랑반 아기라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 스스로도 선생님을 따라 그저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 그랬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때부리는 것도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그냥 두면서 조금씩 달래주고... 그러면서도 이 많은 아기들을 포용할 수 있는거구나.

순간순간 일을 저질러 혼날 일이 많은 아이들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혼날 일이 아니라 이 개월수의 아이들에겐 당연한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뒤처리를 해주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졌다.

아이들을 차분하게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 많이 안아주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이가 느끼게 하는 것! 정말 그 어떤 교육이나 보육보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노랑반에서 그러한 사랑법을 익힐 수 있게 됨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북적대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손이 가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때론 소외되어 혼자 멍하니 방황하는 아이가 있고, 다른 아이의 뒤처리를 하는 동안 방치되는 아이가 있고...

아직은 아기인지라 서로 교사의 무릎에 앉고 싶어 하는 아이들, 특히 여러 아이들에게 꿇이지 않는 콧물과 감기! 엄마들이 눈물 날 정도로 속상해하는 감기는 단체 생활의 고질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수시로 손을 씻겨주고, 먹는 것도 조심해보려 노력하지만 개별 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에 콧물 흘리며 열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켄서리 모두 내 탓인양 그제 미안할 따름이다.

"유치원 ·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 참여"

2004/08/19

정부,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적 지원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사설별 지원 방식이 어린이별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예산의 누수나 낭비를 줄이려면 수요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및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는, 위원회 위원들이 교육감 선출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도 "학부모 참여는 육아 지원 시설 운영에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보육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리 관행을 바로잡는 구실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민간 유치원과 개인 운영 어린이집에는 정부 지원을 우선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운영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의 8292개 유치원 가운데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병설 포함)은 4284곳(51.6%)에 이르고, 어린이집은 전국 2만3400여곳 가운데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1327곳(5.6%)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금까지의 시설별 지원 방식에서 어린이별 지원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육아지원을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직접 쿠폰 형태 등으로 보육 및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민간시설에도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아기가 생기며 달라진 삶의 단편들...

김수연 · 서울저부 회원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가자 주변에서는 '왜 아이가 없나?' 고 험박 반 걱정 반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부부도 아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 열심히(?) 노력한지 1년 정도 되자 아기가 생겼다. 임신 후 나의 삶은 모든 게 달라졌다. 이제 여기에 그 달라진 삶의 단편들을 적어보려 한다.

2003년 8월 3일

정확하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 날이 이날인 것 같다.

8월 18일

감기 기운이 있는 듯 하다는 이야기에 친구가 혹시 모르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한다. 신랑에게 퇴근하는 길에 사오라고 했다. 결과가 궁금하지만 꼭 참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내일 아침 첫 소변으로...

8월 19일

답답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 두 줄이다!

기쁨 반 설렘 반

자기야! 나 아이 가졌어!!

8월 23일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임신이 맞다. 아직 아기집이 초음파로 잡히진 않는단다. 병원문을 나서며 우리 부부는 바빠졌다.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알리느라고...

9월 6일

첫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다. 우렁찼다.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내 안의 새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기쁨이다. 태명을 복명이라고 정했다. 복명이 생긴 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있다. 사랑한다 복명아~

10월 15일

입덧은 없지만 밥맛은 톱 없다. 내가 한 밥은 한 숟가락도 먹질 못하겠다. 누가 해주거나 사서먹는 밥은 그나마 먹는데, 버스나 지하철도 냄새가 나서 싫다. 택시는 괜찮던데...

신랑이 고급병에 걸렸다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고 놀린다.

11월 21일

첫 태동이 느껴졌다. 뱃속에서 울리는 작은 떨림!

말로 표현하자면 뽕뽕뽕 정도일까?

이 느낌이 참 좋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겠지.

2004년 1월 17일

임신 후 나를 대하는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애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애를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들은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보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받을 극진한 대접을 나도 다른 임신부에게 해줘야겠다고 결심해본다.

2월 3일

병원에서 하는 산모체조교실에 등록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30이 넘으면 노산이란 다 ~:) 몸집이 좀 있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게 된다. 임신 후 내 눈엔 임신부만 보인다 내 귀엔 임신했다는 소리만 들린다. 도대체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고 누가 그러는거야?

2월 18일

임신 기간중 뭔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시작한 한식조리!

내친김에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다!

복명아 엄마가 해냈다. 만세!!

3월 6일

병원에서 하는 라마즈 출산부부교실의 첫 강의를 들었다.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찍은 비디오를 보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진통을 견디는 산모도 안쓰럽고 엄마의 작은 구멍을 뚫고 머리를 내미는 아기도 신통하고 경이롭고 모두가 대단하

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났겠지?' 하고 생각하니 다들 기특하고 소중하다.

4월 21일

오늘이 예정일인데 복맹이는 나올 생각도 안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엄마 뱃속이 제일 편하다는 걸 아이도 아는 걸까? 주변에서 '애 낳았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수시로 온다. 복맹아 우리 이제 빨리 만나자!
보고 싶다 아가야!

4월 28일

밤새 생리통 같은 진통으로 잠을 못 설쳤다.
하지만 이정도 진통이라면 열도 날겠단다 싶다.
과연 어느 정도의 진통을 겪어야 우리 아가를 만날 수 있을까?
복맹아 우리 한번 힘껏 노력해보자 엄마와 아빠가 도와줄게!

4월 30일

새벽6시 병원으로 갔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신랑과 4주 동안 배운 라마즈 호흡을 해가며 진통을 견디기 시작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진통이 왔다. 신랑이 곁에 없었더라면 난 정말 자연분만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너무나 든든한 의지가 되어준 신랑이 너무나 고맙다. 무시무시한 진통을 겪은 뒤 우리 딸 복맹이가 태어났다. 으앙 아가의 첫 울음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든다. 내 곁에 안긴 딸이 날 지긋이 쳐다본다. 마치 '당신이 나의 엄마로군요' 하는 것 같다. 한동안 눈맞춤을 하더니 젖을 땀다.
'난 이제 엄마가 되었다!!!'



(아기 사진을 꼭 넣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답니다.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더니만 잊어버렸는지...~*
그래서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을 올립니다~)

여럿이 함께

김 규 · 울산지부 회원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우리네 아이들」에독자고요. 한국보육교사회 울산지부(준비위)를 만들려는 전직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9년 동안 근무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거나(?) 낳고 키웠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동료교사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산전 산후 휴가가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전, 교사 연수가 있어서 갔을 때, 우리 어린이집에는 교사회회가 일주일에 한번씩 있고, 산전 산후 휴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 모두들 부러워하면서 마치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 느끼던 몇몇 선생님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보육교사들이 저처럼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보육교사 모임을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다 1년이 얼렁뚱땅 흘러갔고, 작년에 약 10여명이 울산여성회 보육교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만나서 숯대 만들기, 영유아 보육법 토론, 그림책 이야기 등 무언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황금같은 시간에 그냥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헤어지고, 그나마 잠은 날에는 몬테소리, 가베 등등 웬 교육이 그리도 많은지..... 그래서 한번은 평일에 잡았는데 동구에서, 북구에서 마치고 만나려니 한밤중이라 무산되고, 매월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흐지부지 되기도 했어요. 회원들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쌓여 갔습니다.

뭣대 없는 배처럼 해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윤경 대표님의 강력한 권유와 그동안의 경험은 한국보육교사회 가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꾼 수련회 참여를 계기로 한국 보육교사회 울산지부(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임의 주춧돌이었던 햇살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

다. '매일 모든 아이들에게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다들 기록하고 소중하다.

다. 9월엔 한국보육교사회 울산지부 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을 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고, 지리했지만 보육교사회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 대표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도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8월 28일 전국 수련회 때 뵈게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 회원 가입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글도 함께 보내주셨답니다 -

최 명 한 · 햇살 어린이집 원장샘

보육교사회에 가입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좋습니다.

힘든 일, 즐거운 일, 보람된 일 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 남 애 · 햇살 어린이집 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햇살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산지부 교육 강연회에 자주 갔었음) 가입을 미루다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체 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산지부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의 모든 면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교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너무 기쁘네요. 항상 보육의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보육교사가 되길 빌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명 숙 · 햇살어린이집 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하지만 지금도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놀고 있는 보육교사들 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햇살어린이집에만 7년을 다닌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라는 이름 하나로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싶어서 한국보육교사회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손 혜 정 · 햇살어린이집 샘

저는 울산 햇살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손혜정입니다. 근무 년수가 늘어갈 수록 같이 들어가던 고민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진작 가입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육교사 파이팅입니다.

김 혜 경 · 햇살어린이집 샘

안녕하세요. 김혜경 신입회원입니다.

김규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2주전 김명선 공동대표님께서 햇살 어린이집 방문과 짧은 간담회를 듣고 열악한 보육교사들을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의 땀방울들이 지금은 조금씩이나마 느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조건들을 조금씩이나마 바꿔 나아가기 위해선 보육교사들이 한명 한명 동참하여 정부와의 싸움과 강한 투쟁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힘이 되는지는 지는 잘은 모르지만, 한국보육교사회 일들을 관심있게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화이팅----



엄마가 되어 다시 뭉치다 - 박미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손수정 · 전 예술 어린이집 교사

박미향 선생님은 내가 1996년도 예술에 들어간 후 영아반에서 호흡 맞춰 일했던 선생님이다. 지금은 둘 다 현직에 없어서 자주 보기 어렵지만, 한아이의 엄마들이 되어 다시 뭉쳤다.

언니는 보육교사를 그만두면서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어 10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언니 생활의 전부를 아이한테 맞춰야 했다고... 그래서 언니는 아이랑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저기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작년 4월부터는 푸른 생협(마을모임)도 참여하고 있고, 올봄 5살이 된 아들을 고민 끝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인천 푸른 생협 주최로 하는 인형극팀에서 음향을 맡아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개월 동안은 태극권에 도전했는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배웠다고.
그러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 알게 되서 배우고...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책도 많이 읽고, 비디오도 보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다고..

'일을 다시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엔...

5년 동안의 편안한 생활을 접기란 힘들 게 같다고 하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당분간 없고, 막상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걱정 된다면서 ㅎㅎ 웃었어요!

우리네 아이들 덕분에 굳어버린 머리 좀 썼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ㅎㅎ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고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줌마끼리 모여 이런 저런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왔답니다.

암튼 보육교사 선생님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미향 선생님의 건강비결 ~

•스트레칭 즐겨하기

•생강+대추+감초를 푹 끓여서 마시기

(이열 치열!!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기린 선생님에게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길 바라면서...

보육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

편집부

지난호의 보육교사 생생 채팅 '보육교사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쯤인가?' 에 이어 보육교사들의 설문조사를 실어봅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 그대로 올립니다. 생생한 목소리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 요즘 제일 듣기 좋은 말 - "휴지 마술 해 주세요", "사자 접어 주세요" - 다른누구가 아닌 나만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할 때 웃음이 저절로 퍼진다
- 아이가 꼭 안기면서 사랑해요~ 할 때...(정말 행복감에 감동의 눈물~)
- 아이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제가 방과후라서 그런지 "공부가 쎈 있어요, 언제해요?" 환한 미소로 다가와서 얘기할 때는 ... 울트라 캡송 입니다. ^^
- "우리 애가 어린이집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좋아해요 보다 더 듣기 좋다, 결국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ㅋㅋ)
- 아 또 있다. '어린이집 와서 사람 됐어요.' 4살까지 맨 날 오줌 싸던 애가 우리 반 와서 두 달 만에 오줌 싸는 버릇 고치고 아무데서나 바지 내리던 습관도 없어졌을 때 그 애 엄마가 했던 말
- "눈만 뜨면 선생님한테 가자고 해요"라는 어머니의 말씀과 "선생님 내가 --사 줄게요"라며 아픈 몸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 선생님 만나고 애가 너무 달라졌어요! -좋은 방향으로-
-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동요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 '집에서 맨 날 선생님 말만해요...' 랑 학기 끝날 무렵에 '선생님이 또 해주시면 안돼요? 할 때... 되게 뿌듯하던데 ㅋㅋ
- 뭐니 뭐니해도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고생하시네요...
- 선생님이 제일 좋대요. 무슨 무슨 어린이집이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 넘 달라졌어요. 인사를 넘 잘해요. 밥을 넘 잘 먹어요. 제 아이가 선생님을 만난 것이 행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셔서 안심이에요.

가장 듣기 싫은 말

- 아이가 등원할 때 울거나 떼를 쓰면, 어머님 왓... 우리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여기만 오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집에서 상처가 나서 왔는데, 상처 보고 "이거 왜이래요? 왜 다쳤어요?" 하고 물을 때
- 우리 애가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네요...
- "선생님, 반에 그런 애가 있나 봐요? 집에 와서 안하던 행동을 하네요?" 꼭 아이의 나쁜 점은 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은 느낌으로 말할 땐 그 애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지만 다른 애들도 소중한걸까요? 맘이 아파요...^^
- "어린이집 오는 걸 싫어해요"라며 잠이 덜 깨 세수도 안한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의 말씀과 교사들간에 너무 사이가 가까운 나머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언어 예의를 어겼을 때 얼굴과 맘이 절로 썩그러지죠. 예를 들면 이름을 부르거나(아이들 앞에서), 나이가 3살 차이가 나는데도 "너"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때!

- 예전에 영아의 엉덩이에 동그란 덴자국이 생겼다. 어린이집에서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처. 엄마는 우리를 의심하면서 마구 속상해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백배사죄.. 며칠 후 그 엄마, 그 상처가 전기밥통의 김빠지는 곳에서 난 곳이라며 미안하다고 한다. 그나마 그 엄마는 사실을 사실로 알려준 고마운 엄마였다.
- 항상 산만해서 주의 받고 항상 친구들에게 미운말만 하며 판지 걸어 싸우던 6살 여자아이에게 판 생각 그만하고 교재 좀 풀어오라고 물밤을 살짝 훔내줬는데 그날 그 애 엄마 전화로 조목조목 따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말하고 있다며 애한테 사과하고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니 사과 받고도 먼저 굶히고 들어가지 않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며 그 다음날 아침 어린이집 대문에 팔짱끼고 서서 눈 시릴게 가지고 열 받아서 밤을 샜다며 다시 사과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아이 얼마나 때렸는지 시인하라고 다른 애들도 다 본 애한테 교사 말 친구들 말 믿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는 엄마의 말 너무 싫었어요
- '애가 왜 이러지 왜 오기 싫어하죠. 잘 노는 아이인데 왜 오기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하며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재미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며 못미더워하시는 모습, '때릴 줄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잘 때리죠.' 등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자기 아이만 제일 괜찮은 아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 학부모중엔 애가 집에선 안그런데.. 애가 작년에 다닐 때는 한번도 안간다는 소리 안했는데.. 식의 말들.. 그럼 내 탓이란 말인가.. 모든 탓을 교사로 넘기고 자기애는 절대 안 그렇다고 자기에 파악도 못하는 학부모들...
- 한마디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아이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요구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 원장이 자기만 제일 잘 가르치고, 잘났다고 할 때... 같이 있는 선생님과 다른 원은 무시할 때
- 반에 애들 안 들어오는 걸 선생님 탓으로 돌릴 때,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잔소리 혹은 혼을 낼 때. 자존심 상함.....
- 원장 왈 '샘의 체면이 있지 수업시간에 물도 마시지 말아요' 라고 할 때. 방과 후에선 굉장히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이들 앞에서

금지라니 ...

- '원장한테 허락도 안받고..' 어느 여름, 만 2세반(우리나이로 4세) 아이들과 무더운 여름을 보통때처럼 꼭 짜여진 교육계획안으로 생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어 교육계획안 양식을 바꿔 매일 새로운 놀이 중심으로 진행해보려고 했다가 원장에게 허락도 안 받고 교육계획안 양식 바꿨다고 사무실 불러가서 혼났다.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보육활동의 자율성은 어디까지 인지.. 솔직히 너무 한다 싶었다.
- 그럼 그렇지. 역시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봐야한다니깐... (대학 나온 사람을 보면서..) 저 선생님이 하는 것 좀 보고 배워용~(아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샘...테는) 아무리 못해도 꼬진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보육교사로는 이거 하기 힘들어, , 대학 꼭 나와라!! 진짜 슬퍼져용~ㅠㅠ
- 원장선생님이 이정도 실력을 가지고 이일을 하려고 했습니까?(하는 만큼은 하는데..)
- 원장님들 말 중에는 누구반 선생님네는 애덜이 학기중인데도 넘쳐나네... 그 선생님은 뭐했대 작년엔 정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식으로 원의 경영사정을 선생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다는 듯 눈치 주면서 전의 교사와 또는 다른 원의 교사와 행사 능력과 비교할 때
- (친구들이...) 년 월급 얼마나 받니...~ToT~
- (남편이나 가족들이) 오늘도 또 나가...공휴일에도 행사가 많음. 언제와... (퇴근이 고무줄임-회의와 행사가 많음)
- 못모르는 사람들이 니네일만큼 편한일이 어디있냐고 할 때..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면 되지.. (어린이집 교사를 무슨 애덜하고 놀아주는 식모처럼 여길 때.. 그것도 깔보듯 말하는 친구나 사람들보면.. 그래서 하소연이라도 늘어놓으려고 하면 먼저 저 소리로 구박할 때)

여기저기 카페에 글을 올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이 더 많이 올라오네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더 많이 들었나봐요. 앞으로는 듣기 좋은 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참여해주신 모든 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지부]

경기지부 수련회를 마치고

송 준 금 · 경기지부 회원

7월 10일 부천 동그라미에서 경기지부수련회 및 모임이 있었다.

1박2일의 일정이 주는 묘한 느낌과 기대감으로 동그라미 아이들을 하나둘 보내고 청소도 하면서 이래저래 분주하게 오후를 보냈다. 모이기로 한 5시가 가까워지자 위치를 물어오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반가우신 선생님들이 한분 두분 오시기 시작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아이들의 근황을 물어가며 맛있는 푸짐한 비빔밥을 얼마나 맛있고 감사하게 먹었는지... 부자샘의 이름처럼 정성이 가득한 아주 풍성한 저녁을 행복하게 먹고 나서 티타임과 함께 회의는 이미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8월의 보육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모임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목적이자 목표로써 8월 보육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질 높은 보육활동을 함께 준비하자는 뜻으로 회의는 시간이 갈수록 진지해졌다. 선배샘들이 어찌나 많은 자료와 준비들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오셨다는 생각과 느낌을 토론시간 내내 온몸으로 감동받았던 아주 값진 시간들이었다. 이 열띤 토론과 회의 그리고 발표는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선배와 후배들간의 다양한 보육경험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고 우리의 보육철학에 맞는 그리고 적합한 보육계획을 연령별로 세울 수 있었음을 실감했고 역시 많은 시간의 경험이 제시해주는 수많은 메시지와 정보들을 주워 담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이어서 지부 보고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시간은 또 다르게 어찌나 사뭇 진지하던지 엄숙하기까지 했었다. 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오한 일체감까지 느껴졌다. 가끔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청얼거림과 늦은 새벽까지

도 잠자리에 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조금의 어수선했음은 있었지만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부터 가깝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도 되는 시간이 되자 신입샘들이 대기퇴장(집으로?)으로 인해 상당한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잠깐 술렁였었다. 어둠도 제법 안정되게 정돈 되었을 즈음 동그라미에 정성으로 만들어진 떡케익위에 서른일곱개의 초가 밝혀졌다. 오늘은 비빔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동그라미의 박부자원장님의 생일이어서도, 그리고 좋은신 분들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힘이 되는 것을 느낀 소중한 행복한 새벽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진술한 이야기를 새벽 5시까지 하셨나보다. 지난 이야기에 웃고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으로 생각을 나누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다가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일정표를 거의 무시하다시피한 어제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새벽녘까지 이어진 뉘두리로 인해 단연 산행은 취소가 되면서 아주 부담이 없는 일요일 아침을 맞이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콩나물밥을 맛있게 해서 먹고 동그라미에 가까이 위치해있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새벽에 가신 신입샘들과는 사뭇 다른 아쉬움과 또 고마움 그리고 그리움으로 모두 가고 없는 동그라미를 정리하며 나도 남은 오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가정이 있는 나로서는 1박 2일이 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과 같은 고민, 같은 생각으로 같은 하늘 지붕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폭찬 일정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과 산행을 하면서 주고 받을 수 있었을 대화와 많은 또 다른 느낌과 기회들을 같이 하지 못한 미련이 남지만 말이다.

[광주지부]

“우리네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희망 만들기”

김 찬 숙 · 광주지부 회원

‘예구, 예구’

글을 청탁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럴까?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싱숭생숭! 당일 아

침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나보다 더 애쓰고 발로 뛰었던 쟁쟁한 회원들을 제쳐두고 내가 '일일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단지, 카페에 더 자주 들락달락 하기 때문인지, 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어설픈 글을 너그려이 보아 주시라.

말재간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인터뷰형식을 취하면 글쓰는 부담을 줄일거라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해헤~*

(샘들의 대화 내용을 꼼꼼이 기록하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말한 거하고 틀리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감고 귀막아 주시라! 다음 인터뷰엔 녹음기를 준비해 볼까나!)

◇ 안녕하세요? 일일주점 때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가령, 표를 팔 때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 네, 저는 남편이 흔쾌히 '사 주겠다'고 했어요. 남편 친구들한테도 팔아주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참 좋았어요. 또 우리 회 홍보도 많이 했죠.(박♡♡ 샘)
- 이게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전대병원 어린이집으로 표를 팔러 갔었죠. 그 날 무척 더웠지요. 어린이집 찾느라고 헤매고 옷차림도 영 아닌 것 같고, 더위로 고생 고생해서 표를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는 후배의 후배(얼굴만 아는)에게 표를 강매하기도 했어요.. 표를 사주는 것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위한 것이라며.. 그리고 원장님들에게 표를 많이 팔았는데, 직접 오신 분은 딱 한 분 뿐이라... 우리가 돈을 위한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사회를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말이예요.. 저는 한마디로 직위(원장샘)를 앞세워 원장 샘들한테 표를 강매했습니다.. 하하하(이♡♡ 샘)

- 저는 그 날 저녁 모임이 있어 잠깐 들렀죠. 표를 못 팔아 자부담했어요.. 후후
(주♡♡ 샘)

- 표를 많이 팔았는데.. 10명 넘게 안 왔어요.. 그 날(24일)에 이라크 파병철회와 쌀개방 반대 집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단체 회원들이 많이 오지 못했구요. 아참, 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들에게 표를 4장이나 팔았답니다. 학교 선배(이름:봉인)에게는 '봉 만났다'고 했네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표를 팔아줄 여건이 안되지만 늦게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정리할 때까지 도와주신 분이 기억나네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후원 회원인 조리사샘.. 시장 보는 거며 김치도 담궈 주시고, 당일 날 주방에서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있는데.. 주점 때 손님들에게 서비스한 과자를 8천원에 샀는데.. 말신 샘 아는 분이 만원에 사가셨어요.. 웃음.. 남은 음식.. 나눠 가

저간 것도 기억에 남네요 (김♡♡ 샘)

- 저는 10장 다 신랑한테 줬어요.. 신랑에게 고마워요. 하하 (박♡♡ 샘)

- 저는 표 갖고 있던 길로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는 사람들 얼굴 보는 즐거움이 컸어요. 준비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 샘)

- 표 팔면서 저는 참 좋았어요.. 평상시에 전화 통화만 했던 사람들을 표 팔면서 만나러 가고 사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자체가 참 좋았어요. (김♡♡ 샘)



◇ 일일주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표를 많이 못 팔았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표 많이 팔았어야 했는데... 표를.. (박♡♡ 샘-시종일관 표를 많이 못 팔았다며 아쉬워하시는 목소리로-)

- 음.. 준비 과정이 힘들었죠.. 애들도 봐야 하고.. 당일 날 힘든 건 없었구요.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앰프(마이크)를 준비 못한 거예요. 대자보 선전을 했지만, 교사회 소개도 하고, 우리 활동 홍보하고, 주점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날씨가 겹칠 줄 몰랐지만 그 당일(7.24일)서울에서 범국민대회가 있어서 광주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우리 회를 알려내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움으로 남아요 (김♡♡ 샘)

- 매년 하는 것이지만,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행사 준비하는 주체들이 힘을 받는 행사가 되었으면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 여건 자체가 참 힘든 부분이 있죠 (이♡♡ 샘)

- 행사를 앞두고 주점이 힘든 게 아니라.. 행사 준비하는 거, 개인적으로 시장보기와 미리 준비하는 것 등이 힘들었습니다. (박♡♡ 샘)

◇ 일일 주점의 보람이나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 우리 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 회원들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고 함께 해서 좋았어요. (박♡♡ 샘)

- 오랫동안 샘들 얼굴 보아서 참 좋았어요. (주♡♡ 샘)

- 열린 기행 때 함께 했던 선아 샘이 자원 활동해 주셨고 인자 샘이 시간내서 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수익 사업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다 모여서 같이 일하고 웃고, 월례회

도 있지만, 역할 분담도 잘 되었고 수익도 조금 생겼고, 마무리할 때까지 다들 열심히 해 주었어요. 또 하반기 사업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기구요.. 한마디로, 우리 회원들 "대단하요". <김♡♡ 쌤>

무지 무지 더운 날! 바쁜 중에도 질문에 응해주신 쌤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촛불 이벤트를 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과 전쟁 반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
비록, 모든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진 못했지만 전화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마주 대화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우리에게 일일주점의 의미는 주점의 슬로건처럼 수익사업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만들었다는 것 아닐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간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함께 내딛는 교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부산지부]

향기 있는 여인이 되어~

김 미 옥 · 부산지부 회원

보육교사회에 들어와서 처음 받게 되었던 6월 교사교육, 연일 계속되는 비로 마음속으로 갈까? 말까? 망설여졌다.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의 "안 가면 후회될 교육이다"는 말로 마음속의 갈등을 모두 던져 버리고 교육장소로 향했다.

날씨탓인지 생각보단 많은 사람이 와 있진 않았지만 배우자하는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 '처음처럼'의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것으로 오늘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천연 비누 만들기'와 '자연향 목걸이 만들기'이다. 먼저 천연 비누 만들기는 비누베이스를 자연색소와 함께 녹여서 아로마향을 넣고 준비한 비누틀에 원하는 양만큼 비누베이스를 넣어 실온이나 냉동실에 굳히면 된다. 비누베이스는 아주 빨리 굳으므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비누와 비누사이에 에탄올을 뿌려서 비누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 다른 색을 내는 무지개비누와 큰 비누 안에 다른 색의 작은 조각들을 넣는 조각비누 만드는 방법도 배웠다.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 해 줄 때에는 무척 쉽다고 느껴졌었는데 직접 해보니 처음부터 꼭 막혀서 '강사님~'을 서로 불러댄다. 특히 무지개 비누를 만들 때에는 비누사이에 에탄올을 뿌리는 시기를 잘 알지 못해서 아래위의 비누가 합쳐지거나 색이 섞이기도 하고, 빨리 좋은 작품을 만들 의욕이 넘쳐 모두들 에어컨 앞에서 비누를 들고 말리느라 비누 들고 벌서는(?) 진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옆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비누베이스가 넘쳐서 불이 붙어 모두 놀라기도 했다.

각자의 개성과 정성이 가득 담긴 천연비누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천연비누라서 랩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토피 등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대병들의 자연치유에 무척 좋다고 한다.

우리의 작품 천연비누가 굳을 동안 자연향 목걸이 만들었다. 목걸이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목걸이에 원하는 아로마 향을 넣는 것으로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목걸이를 선택해서 원하는 향을 넣어 제각기 자연향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교육을 통해서 오랜만에 회원선생님들도 만나고, 자연향 가득한 천연비누와 자연향 목걸이를 만들면서 몸과 마음이 무척 깨끗해졌다. 오늘 오후 말까 갈등했던 생각이 부끄럽게도 느껴지기도 했다. 아이들과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연의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손에는 오늘의 나의 작품 천연비누를 들고, 목에는 향기나는 목걸이 걸고 향기나는 여인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오늘 만든 비누는 아까워서 못 쓸지도 모르겠다. ^^

이런 교사교육이 자주 있어서 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더욱 살찌웠으면...



[서울지부]

독립된 인간의 기본

구 미 진 · 서울지부 회원

'살림을 잘하면 모든 일을 잘한다!' 는 말이 있죠?

살림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결혼 전에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통한 독립은 저에게 스스로 밥을 해야 하고 청소, 빨래, 장보기를 해야 하는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일상은 곧 큰 어려움이 되었죠. 가장 손쉬워 보이는 장보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양과 필요한 종류를 예상하여 구입해야 하고, 구입한 후에는 종류별로 보관법을 달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밥하는 것도 그냥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곡밥은 기본이고 식구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루의 양을 조절하여 되도록 새 밥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 빨래도 역시 신경써야 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독립된 살림을 하면서 닦았던 살림의 어려움은 제가 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살기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체득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 저는 저의 아이가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여름연수의 강의 내용인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변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한 생활교육은 저에게 의미 있었습니다. 생활교육은 인간의 삶의 기본인 일상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며 독립된 인간으로의 기본을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교육은 진행되었는데 오전강의인 제1강 '우리 아이들의 놀이 다시보기 - 발달이론 비판'은 흥미로웠습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은 더 좋은 진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강의 내용은 신선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당연시하며 적

용하였던 이론과 경험들이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2강 '현장사례 엿보기 -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강사님의 강의 중에 은근히 배어나오는 생활교육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스스로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여된 부분이라고 여기는 수업 준비, 진행하기 등에 치중하기를 바랍니다. 간식 및 식사 준비하기, 이불 개기, 청소하기 등의 자잘한 일상적 일은 교사의 일이 아니라 여기는데 현실적으로 안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활교육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점에서 착안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오후 강의에서 전 영아를 대상으로 한 펠렛 인형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모인 참석자 모두가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듯한 과정상의 노동이 오히려 즐겁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인형은 저의 남편도 너무 예쁘다고, 부드럽다고 한참을 만져보며 태어날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좋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저희집 거실에서 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교육은 저에게 자기반성 및 자기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떠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면서 현장에서 지내던 저의 생각과 아이들에 대한 이해수준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의 주제가 "한국사회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였는데 이번 연수가 얼마 후면 태어날 '우리 건강이와 무엇을 하고 놀까?' 라는 좀 더 세분화된 고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부]

2004년 인천 열린 강좌

정 영 숙 · 인천지부 회원

열린 강좌의 안내문을 받고 무척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술 어린이집으로 도착했다. 생

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서 신선하고 들뜬 기분으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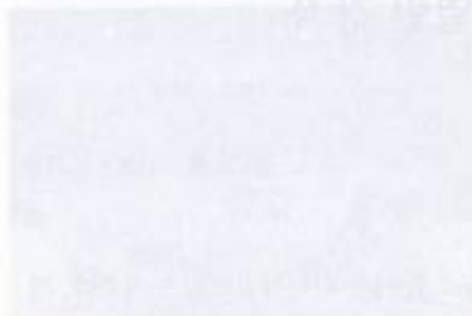
첫날인 6월 12일은 1강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천연 염색이었다. 천연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끈이라는 새로운 재료로 염색하고, 색의 변화와 색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모두들 눈들이 반짝였다.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염색한 천들과 지끈 가방을 보여 주셔서 더욱 더 참여도가 높아졌다. 천연 염료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수업하신 자료들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2강은 참나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까운 굴 포천으로 모두 나가 풀과 나무를 보며 흥미를 더해갔다. 돌아와 손수건에 풀잎 물들이기는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19일 3강은 지끈 장난감 만들기였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수강을 한 터라 무척 기대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천연 염색을 한 지끈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더 뿌듯하고 기뻐했다. 좀 서툴러서 힘들기는 했지만 아주 재미있고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배우는 것이 무척 신이 났었다. 하지만 마음은 강사님의 말을 알면서도 왜 손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지... 속상해 하며 3강을 아쉽게 끝맺었다.

4강은 장단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재미나는 전래 놀이와 전래 곡을 배웠다. 얼마나 신명나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두들 신이 났었다.

끝으로 뒤풀이는 예술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끈에 대한 욕심만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후속모임을 생각중이다. 아주 인기가 대단했다.



↓ 중앙활동

생활속에 실천하는 아동인권 1

서 정 은 · 본회 정책위원

지난 6월 26일 9시, 30명의 보육교사들이 모였다.

이들이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유는

[보육교사 아동인권 김수성 키우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의 주제는 "생활속에 실천하는 아동인권"

강사로는 필자를 비롯

이별은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경녀(보육교사/책책이 어린이집)

이강선주(한국보육교사회 교육위원/숙대 아동복지학과 석사과정)

■아픈 기억

사람의 기억은 책 밑을 만만 게 못된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아픈 추억은 있는 법이다. 특히 뚜렷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린 상황이나 사건이었다고 어떤 연구에서 밝혀지 않았던가?

중학교 2학년때, 학교 교실에서, 체육선생님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떠든다고 모욕적인 벌을 줌.

"수업시간에 자꾸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은 개다. 떠들지 말고 침을 흘려라" 였던 것 같다. 몸짓은 딱딱하고 권위적, 한손에 큰 매를 들고 있었고 휘두르진 않았지만 무서워 보였다. 표정은 차갑고 냉소적임,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짐. 친구를 끌어다가 칠판 앞에 세우고 칠판지우개를 물게 함. 난처해하자 억지로 입에 물려줌.

친구는 "친구랑 떠든 게 아니고 뭐 좀 빌리려고 그랬어요", "아이.. 싫은데.." 하는 말. 손으로 얼굴 가리기, 고개 떨구기, 부들부들 떨며 뉘이 나간 얼굴과 무척 수치

스러운 얼굴 표정이었으며 오기가 보임. 억지로 칠판지우개를 입에 물고 버텼.
나는 나와 같이 떠들다 걸린 것이 아니어서 뭐라 항변할 수 없었음. 보호하고 싶
었으나, 나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교사에게 반항할 수 없었음. "너무 한기 아니
예요!"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말 못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음.

=6.26 워크샵 과정 중 어느 교사의 기록=

위 글은 그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아동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상황과 사건이 있었
는지에 대해 기록한 어느 참석자의 글이다. 학교는 교육적 지도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져왔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험과 기억 한 두개 정도는 이 나
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터이다. 참석자는 10여년전 과거가 아
니라 현재 눈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교사와 아동의 말과 몸짓, 표정, 행동에 대해 자세
하게 기록하고 있다.

교사의 가혹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겪은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학생들에
게도 그 경험은 매우 끔찍한 기억으로 자리함을 보여준다.

■ 싫은 게 어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보다는 아동의 인권 침해 정도가 덜하다고들 말한다. 그럴지도 모
르지만, 부실한 급부식, 아동 체벌, 감금 등 최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보육시설 관련 사
건들을 접하다 보면 보육시설내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점심 식사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내가 편식하고 늦게 먹는 우리반 아이에게. "열심히 먹자! 이거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하고 말했다. 밥을 국물에 말으
면서,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며 밥을 많이 떠 넣어줌. 아이는 "네.."하고 대
답은 했지만,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 토
할 뻔 했다.

나는 성인도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똑같은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인 아이이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해져 있는 식사시간에 맞추기 위해 또
한 점심 시간 이후의 나의 계획된 일과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내 나름대로의
내 판단에 근거해 아이에게 음식을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6.26 워크샵 과정 중 어느 교사의 기록=

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것과 교사로서 느낄 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학교와 보
육시설이라는 공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수업과 식사시간이라는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10여년과 달리 인권이 이 시대 화두인 세상인데.. 시대도 다르고, 학교야 원래 그렇듯
무식한 남교사들이 많았다면, 어린이집이라는 장소도 다르고, 아동에 대해 공부하여 천
진난만 순진무구한 보육교사(라고 이야기한다), 뭘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여겨진 수업
과 즐거운 식사시간 각각 다른데... 학교와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는가·없는가·

'싫어요'라는 말에 아이의 말도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싫은게 어딴?"하며 대응했다
는 교사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보육시설 일과에서 아이들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되
고 있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한다.

■ 하루 일과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 되는 부분에 대한 단어나 짧은 문장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
어나 짧은 문장을 작성하였다. 아래는 참석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몇가지로 나눠 분류
하였다.

분 류	워크샵 참석자 기록
식 사	국은 나중에 밥은 따로, 대충 먹이는 것
	국에 밥 말아서 먹을 때(효율성, 편리성)
	자유로운 식사 분위기 제한 할 때
	- 식사시간
	- 돌아다니기
	- 먹기 싫은 음식식사
	- 오래 먹고 있어요
	- 편식하면 안되요
	- 맛있는 것만 먹고 더 달라는 경우
	주어진 밥을 다 먹어야 하는가?
	- 반찬의 양을 무조건 주는 데로!!!??
	- 반찬의 양과 밥의 양을 스스로 떠 먹을 수 있다면 (아이는 설명해 주면 다 알아요)
	- 항상 모든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나?
	- 영양소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식 사	아이들이 느끼는 자유나 권리가 성장에는 보다 더 필요... 먹는 것 → 먹는데 선택적이다 음식 먹을 때 강요해서 먹인다 - 기호 식품, 못 먹는 음식 - 어른의 입맛에 맞추어서 먹이려고 한다 (맵고 짜고) - 아이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식사량(먹는데 안 먹는다) - 평소 먹는 양을 정해서 무조건 많이 먹이려 함 -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야 함에도 교사가 주는 것 - 다 먹어야 한다
	더러운 침구, 낮잠 잘 때 베개도 안주고 재울 때 낮잠 자는 시간은 친구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조금 클 수 있는 시간이고 오후 활동을 잘 할 수 있단다 (낮잠 강요) '누워' (의사와 상황에 관계없이 낮잠 시간이니까) 낮잠시간 - 깨는 시간의 차이 - 일괄적인 낮잠 시간 (늦은 등원으로 낮잠 시간이 필요 없을 때)
활 동	하고 싶지 않은 학습을 강요받을 때 풍욕 때 무조건 팬티만 입고 벗자 - '한줄 기차' 하자 - 경찰 아저씨, 애비, 도깨비 - 괜한 사람 '두려움'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 - 대집단 활동 - 종이 접기 - 질서(새치기) - 복잡, 혼잡
	학 습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말을 막는다 -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 획일화된 프로그램(다양성, 개인에 대한 배려) → 이럴 때 다른 걸 할 공간이 없다는 거 - 교사는 반응이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도그물에 참여하기 싫은 데도 해야 할 때 - 집단 생활에 개인이 맞춰야 하는 것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주제) -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맞추지 않을 때 (신체적인 것)

학 습	- 공동 활동에서 자율성 무시할 때가 많다작업의 시작과 끝 - 아빠 다리 하세요~ - 탄 데 보거나 친구랑 손장난하는 등 지루해라는 아이들 표정 - 반복되는 말 사용 (정리하자 oo야 정리해야지)
	자 유 놀 이 마당놀이- 자유로움 안에 구속, 침범, - 잔소리 바깥놀이 - 놀이 종류 - 모래 놀이, 물놀이 - 놀이 제한 - 타임 아웃
아 동 간 길 등	사과하게 하는 것 - 화해, 해결 방법에서 교사 주도적인 경우가 많다 - 상투성을 벗어나려면 '미안해'로 넘겨 버리는 경우
	이 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공 통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당직 1 - 힘들고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 유아는 배 고파함 - 엄마랑 빨리 보고 싶고 놀기 싫은데 획일적인 활동
	교 사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고 교사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 교사 파카, 난방 x 교사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때 무관심 - 처벌 - 놀이 중재 - 강요 - 말보다는 행동(ex. 아이의 옷을 잡아당김) - 아이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 - 짜증 - 유도말조차 하지 않고 '외면' '방치' - 극단적인 언어 사용이중의 얼굴- 협박과 규범 -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아동관(애정) 등이 제대로 놀이를 중단시키는 것 - 공격적인 놀이라고해서 무시, 하지 마! - 아이들의 놀이를 교사의 권리에 따라 중단 (의자맡에 들어가거나 교실에서 뛰는 것)

교 사	선생님 이제 화내실꺼야!	
	- 어흥이 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	
	- 경찰아저씨한테 말할꺼야!	
	-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고 하지마!	
	- 하지 말라는 데 자꾸하면 혼난다!	
	- 너 머리에 뿔 나온다 도깨비 나라로 가라!	
	- 언니, 오빠가 못된다	
	- 그만해! 만지지 마!	
	- 혼나!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얘기만 간다(헛박)	
	- 기저귀 해야겠다	
	- 이제 혼난다	
	'어린이집 버스' 콩나물 시루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서고 의자 등 사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 서게 하는	
	시간에 쫓김 → 교사가 너무 일과가 빡빡한 어린이집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는 눈을 이미 상당부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사, 낮잠, 자유놀이와 학습 등을 포함한 활동,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교사들은 아동인권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 나는 어린이(아동)인권의 옹호자인가, 가해자인가?

'나는 아동인권의 옹호자인가, 가해자인가'의 질문에 자신을 아동인권의 옹호자로 응답한 것은 전체 응답 문장 9개 중 하나였다. 가해자라고 응답한 문장은 4개인데, '하루 일과와 보육 프로그램속에서 무의식중에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가해자라는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 '옹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돌아보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 이라고 밝히고, '옹호자이고 싶지만... 지금의 생각으로 여지껏 가해자였던 것 같다' 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처음 현장에 왔을 때엔 아동을 존중하려던 점이 높았던 것 같으나 이제 경력이 붙으니 아이를 다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는 다루어야 할 존재로 비하시키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됨. 가해자에 가까운 듯' 하다는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머지 4개의 문장에서 교사들은 자신을 아동인권의 옹호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라고 응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에 적은 응답 문장이지만, 9명 중 1명만이 자신을 아동인권의 옹호자로 여기며, 4명이 옹호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 그리고 4명이 아동인권의 가해자로 보육교사 자신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빡빡한 하루 일과를 가진 보육시설에서 하루종일 많은 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현재 위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계속)

I인권 워크샵 참가기

아동인권 찾기

김 명 숙 · 자연어린이집, 인권 워크샵 참석자

유아교사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현장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워크샵에서 행사를 앞둔 강습회까지 다양한 교육은 있어도 아동인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를 하는 기회는 거의 전무 하다. 생활 속에서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말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은 아침부터 이미 인권이 차단된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인적 환경으로부터 매우 많은 부분이 그러하다. 텔레비전이나, 가성의 목소리로 불려지는 동요 테잎 기계음에, 지나치게 환해 눈을 지치게 하는 조명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있고 교사는 의자에 앉아 위계 질서와 보이지 않은 권력 행사를 하는 일도 권위주의를 앞세우는 장면이다.

아이들은 신지 않은 실내화를 신고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 교사들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언어로 통제소통방법을 보면 '합죽이가 됩시다' '두손 무릎에 아빠다리' 합죽이를 닮은 사람이 들으면 기막힌 일이다. 자신의 개성이 통제 언어로 쓰이다니,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다리' 소리를 들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았는가?

밥 천천히 먹는 아이에게 동생들 방에 가서 먹고 오라는 말도, 바지에 오줌 싼 실수한 아이에게 기저귀 채워 주어야겠다는 말도 아이들 입장에서 들으면 치욕적인 발언이다.

옛날, 아이를 양육시키는 사람인 유모시대가 있었다. 그때 유모를 선발하는 기준은 지금처럼 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말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어린이는 성인의 도움이 없이도 강력한 생명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우주와 인류에 대한 물음과 앎을 찾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짐을, 조심을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행동조심, 말조심이었다. 그것은 교육학적 용어로 '관찰과 의사소통'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깨어있을 때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산다.

그 사회적 공존의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과연 평등한가? 되돌아보면 여전히 그들은 사회적 약자에서 굴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 커다란 몸짓으로, 위협어린 눈빛으로, 너무 사회성이 없다고 무시한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같은 똑같은 심장을 가졌고 혈액이 순환하고 있으며 민감한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다. 오히려 성인 보다 더 맑은 영혼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산만하고, 참을성 없고, 영악스럽고, 말을 아주 잘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다.

아이들은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른을 필요로 한다.

왜 아이들은 경외심을 갖는 어른을 필요로 할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이상적인 삶은

"나는 이 어린이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교사 자신인 나에게만 어떤 것을 원한다'는 자세로 산다면 아이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산다.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교사는 눈빛만으로도 아이들과 영혼을 교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 세상읽기

달밤에 체조하고 싶다

김진숙 · 정책위원

달.

나는 달이 좋다.

어느 날 달이 내게로 와서 달만 보면 가슴이 설렌다.

달에 대한 추억이 있다.

특히 기억나는 두가지.

어릴 적, 아마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지 않았을까 싶다. 좀더 어렸을 수도 있고. 학교를 오가며 한적한 길에서는 혼자 노래 지어 부르기를 좋아하던 나는, 저녁 어스름때할 무렵 집을 나왔다. 해가 저서 어둑어둑해질 때, 아직 빛의 기운이 다 사그라들기 전, 푸르스름한 기운을 아주 조금 간직하고 있을 때, 어둠이 사방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하는 때, 이 때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때이다. 이 좋은 기운을 만끽한 후 달빛이 은은히 자리 잡자 난 대문 위로 올라갔다. 예전엔 대문 위에 작은 텃밭을 가꿔도 좋을 만큼의 텃밭이 있었다. 그곳에 올라가 예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지어 부르기를 하며 왔다갔다,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 나를 비추는 달과 노래와 몸짓에 심취해 있는데 느닷없는 외침. '야! 달밤에 체조하냐!' 돌아보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남학생들.(우리집 바로 뒤편이 산이다.) 으~ 이후 난 혼자 달밤에 체조한 적이 없다.

또 한가지. 인도여행 갔을 때, 오로빌 공동체에서 자리 잡고 사는 분의 집에 갔었다. 보름달이 흰하게 떴고, 달빛에 고무된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가 음악을 틀고 보름달 아래에서 춤을 췄다. 달의 정기가 내 몸으로 흘러들어오고, 내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 이날 이후 난,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기운을 받고 싶은 마음에 들뜬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달에 대한 기억을 말하냐면, 얼마 전, 달빛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사다. '달빛아래,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는다'는 모토로 밤 8시-10시까지 여성들이 모여 밤길을 걷는 행사를 했다. (<'밤길을 되찾아오는 것'의 의미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에 대한 위협감으로 인해 얼마나 위축되고 통제되어 왔었는지를 알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운신의 권리, 몸에 대한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절실히 공감했다.

올해 일어난 여성들의 살인사건으로 얼마나 맘을 졸이고, 몸을 사리며 밤길을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비오는 목요일에 흰옷 입고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서로 주의를 준다. 유명철로 인해 드러난 여성들의 죽음은 범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뜰이나 졸아있는 몸과 마음을 더 움추리게 만든다. 폭력과 죽음의 소식에 이어 여성에게 들려오는 것은 '너희들이 몸가짐 조심해라'이다. 범인이 좋아하는 흰옷입지 말고, 목요일엔 일찍 들어가고, 특히 비오는 날 나다니지 말라고 한다. 흰옷을 입지 않고 비오는 날 목요일만 피하면 위협에서 벗어나나? 지역성과 연쇄성만 없을 뿐이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위협은 존재하고 폭력은 일어난고 있다.

유명철로 인해 언론에서 이 사건만 다루면서 웬지 이제는 여성들의 밤길이 편해진 것처럼, 한시를 놓인 듯 해 보이지만, 서울남부지역의 연쇄살인사건은 가닥도 못 잡은 채 있고, 여전히 여성들은 밤길이 무섭다. 아니, 이제 밤만이 아니라 낮도 무섭다.

피곤해도 터덜터덜 갈 수가 없다. 허술하게 보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술이라도 한잔 한 날은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만약 폭력을 당하더라도 술 마시고 밤늦게 다녔다는 죄를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길을 갈 때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내가 싫어졌다. 언제부터 밤길이 빨리 지나쳐야 할 길로 되었는지. 언제부터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위험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제정신을 차린다. 빨리 가야해.

난, 흰옷이건, 미니스커트건, 목이 많이 파진 옷이건 내 맘에 드는 옷을 입고 싶고, 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밤기운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싶고, 달이라도 높이 뜨는 날이면 달빛따라 춤을 추고 싶고, 기분 좋으면 노래 한자락 뿜으며 다니고 싶고, 놀이터에 앉아 한적함을 맛보고 싶다.

"성폭력에 대해 반대하기"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통제에 반대하기"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선언만으로 찾아질 수 없다는 걸 안다. 법을 제정하고 강화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지도 않을 거다. 그래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실천을 함께 하는 건 잘 못하지만, 내 나름의 작은 실천을 해본다. 여성이 당하고 있는 듯하면(추근거림을 당하고 있어보이든지, 연인인지 부부인지 싸우고 있다든지) 옆에서 지켜보기.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지켜보는 눈길만으로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같이 소리 지르기도 한다. 나에게 되돌려질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힘을 믿으며 한껏 소리 지른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기에.

이런 작은 행동과 큰 행동이 모여지면, 여성이기에 약해지고, 통제되고, 폭력당하는 일이 사라지겠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어릴 적 비웃음으로 인해 빼앗긴 '달밤에 체조하기'를, 어른이 되어서는 꿈도 못 꾸었던 '달밤에 체조하기'를 정말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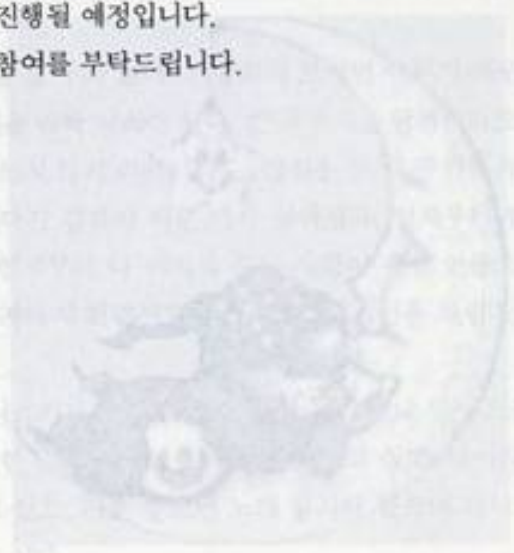
2004년 돌봄을 주제로 한 현장연구모임 시작합니다.

현장연구모임은 8월20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총 11회의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연구모임은 윤선영교수님의 진행으로 경기지부 임미화·김미숙·김수연, 대구지부 엄명숙·박상민, 서울지부 서주희·김미정·황호정·김옥희·정미자·이성봉·한송이·이경녀 회원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윤정 회원님은 기록자로 함께 하십니다.

후원모금 50일 집중기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한국보육교사회 50일 후원모금 집중기간이 8월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후원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정후원자모집과 좋은 엄마 정기구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워크숍

- 8월23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19층 -

유아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여성부는 8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정보센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및 한국보육교사회 등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육교사·시설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여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개발한 '유아기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다.

여성부는 사회 저변의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문화적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날 워크숍은 여성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김희진교수와 박삼근교수가 참석해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및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교육할 경우와 가정에서 부모들이 유아를 가르칠 경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여성부는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일생동안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인 유아기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양성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사회 저변의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차별개선기획(담) 정진현 02-3703-02596(jhjung@moge.go.kr)

정리 : 백현석(bc703@moge.go.kr)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일 : 2004.08.20 10:30:00

🕒 [전시] 제7회 안양시 교재교구공모전 및 제1회 보육활동 사진전

일시	2004년 9월 1일(수) - 9월 3일(금)
장소	안양 문예회관 컨벤션 홀
대상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관련 학생·일반시민
주최	안양시
주관	안양시보육정보센터 (031-383-5170-1 http://www.aycteducare.go.kr)
후원	성결대학교

▶ 개막행사 및 작품 심사

2004년 9월 1일(수)	10:00-12:30	안양문예회관 컨벤션 홀
Opening	10:00-10:30	인사말씀/축사
작품심사	10:30-12:30	심사위원

▶ 작품 전시회

2004년 9월 1일(수)~ 9월 3일(금)	안양문예회관 컨벤션 홀
관람시간	
· 9월 1일(수) 12:30-17:30	
· 9월 2일(목) 10:00-17:30	
· 9월 3일(금) 10:00-15:00	

▶ 시상식

2004년 9월 22일(수)	11:00	중앙공원
시상내역		
· 최우수(교구 및 사진 각각 1작품)		
· 우수(교구 3작품, 사진 2작품)		
· 장려(교구 5작품 사진 3작품)		

▶ 특별이벤트

- 오군이와 함께하는 영양만마당
엄마 아빠 어린이와 함께 오세요
- 2004년 9월 1일(수)~9월 3일(금)/안양문예회관 컨벤션 홀
 - 주관: 안양시보육정보센터·만안구·동안구 보건소

영양교수자료 전시마당 - 건강열차, 식품자식, 식품모형 - 아케비 비디오, 인형극 자료 - 식품스티커, 식품도장 - 유아다빈도 대표식단 - 각 영양소별 교환식품	영양인형극 마당 '미녀와 야수' - 9월 2일-3일(3회/1일 총6회) - 1회(10:30) / 2회(11:30) / 3회(13:30) • 인형극 관람은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 신청에 한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1회 관람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가신청:383-5170-1)
영양체험 놀이마당 - 건강열차게임 놀이 - 식사예절 알기 말판놀이 - 식품자식으로 우리몸 만들기 - 식품도장 찍기놀이 - 식품모형 만들기 • 놀이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영양 교육 활용자료를 나누어 드립니다.	특별마당 check check나의 식단 - 내가 먹은 음식 칼로리 알기 - 한끼 식사열량 및 영양소 분석 - 미탄 및 허약 아동 영양상담 •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세요 (참가신청: 383-5170-1)

㉠ [공모] 2004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전국 교구공모전

1. 목 적

전국 보육 관련 교구공모전을 통해 보육 현장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교구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2. 응모 구분 및 자격

- 개인: 교사, 학생, 일반인
- 단체: 어린이집, 대학, 보육교사교육원
- 업체: 영유아 관련 교구 및 CD-ROM Title 제작 업체

3. 작품 내용

어린이집 영유아반 교구, CD-ROM Title

4. 수상작 (수상편수: 총 37편, 총상금: 일천이백오십만원)

구 분	편 수	상 금
대 상	1	2, 000, 000원
최우수상	2	각 1, 000, 000원
우 수 상	3	각 500, 000원
장 려 상	10	각 300, 000원
입 선	20	각 200, 000원
특별상(업체)	1	없 음

※ 모든 수상작에는 여성부 장관상 및 기념품(여성부 및 삼성복지재단) 이 수여됨

5. 접수 일정 및 제출물

구분	일 정	대 상	제출물	접수처	방법
응모 신청	9/6(월)~9/17(금)	전체 응모자	응모신청서	삼성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류 접수	10/8(금)	전체 응모자	교구설명서	삼성복지재단	우편
작품 접수	11/13(토)	예비심사 통과자	교구 및 포스터	성균관대학교 전시장	직접

※ 예비심사는 교구설명서로 심사하고, 본심사는 예비심사 통과자에 한해서 교구 및 포스터로 심사함

※ 교구설명서 양식, 교구 및 포스터 제작지침

교부처: www.samsungwelfare.org

※ 교구설명서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방 응모자의 경우 교구 및 포스터 접수시 운송비는 실비 지원하며, 택배 접수도 가능함

6. 심사

구분	일 정	대 상	방 법	심사발표
예비 심사	10/18(월)	전체 응모 작품	교구설명서 심사	삼성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10/19, 13:00)
본 심사	11/15(월)	예비심사 통과 작품	교구 및 포스터 심사 (심사시 설명 기회 제공)	삼성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11/15, 17:00)

7. 시상식 및 전시회

■ 일 시 시상식-11/16(화) 14:00

전시회-11/16(화)~11/19(금) 10:00~18:00

(단, 16일은 15:00시 개장, 19일은 17:00시 폐장)

■ 장 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국제홀

8. 기 타

■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본 재단이 소유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심사 대상 작품은 모두 전시하게 되므로 전시 기간 중 조기 반출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심사 대상자에게는 삼성복지재단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교구설명서 제출처 및 문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42-3번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층 아동연구팀 (140-893)

(Tel : 02-2014-6834, 6652)

여 성 부 · 삼성 복지 재 단

중양소식

- ◆ 7월3일 한국보육교사회 충청지부 준비위 주최로 충남홍성 YMCA 강당에서 [보육교사 근무환경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보육정책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여 강연하였습니다.
- ◆ 7월9일 집행국회의가 있었습니다.
- ◆ 7월10일 대구지부 주최로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돌봄의 보육철학]을 주제로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철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현경교육위원과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강연하였습니다.
- ◆ 7월13일 교육위원회회의가 있었습니다.
- ◆ 7월19일 운영위원회회의가 있었습니다.
- ◆ 7월28일 한국여성재단의 [2004년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중간감사가 있었습니다.
- ◆ 7월30일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공청회에 공청회에 이윤경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 7월31일 2004년 여름수련회 답사를 이강선주사무국장과 임정수 간사가 진행하였습니다.
- ◆ 8월11일 2시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 8월16일 1시 대구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2004 여름수련회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 8월19일 인권교육워크숍 1회 교육이 사랑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 8월19일 집행국회의가 있었습니다.
- ◆ 8월19일 6시 교육위원회회의가 있었습니다.
- ◆ 8월20일 7시 여성노조교육장에서 2004 현장연구모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 ◆ 8월21일 인권교육워크숍 2회 서일전문대부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있었습니다.

◆ 8월23일 여성부에서 주최한 '유아기 양성평등 의식 교육프로그램' 활용 워크샵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있었습니다.

지부소식

[경기지부]

- ◆ 수원여성회가 15주년 행사로 안해경씨 콘서트를 했습니다.
- ◆ 이기원 회원이 대표로 있는 곳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지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원 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7월 상반기 평가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 ◆ 7월10일 여름 지부 수련회를 일박으로 부천 동그라미에서 있었습니다.
- ◆ 주제는 [경력과 신입이 함께 짜는 8월 보육활동 계획]이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교육활동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이어서인지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 8월 보육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 6월 16일 두 번째 확대 운영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확대 운영위 교육에는 각 소모임장과 부서장까지 참여했습니다.
- ◆ 6월 19일 6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무료 발판리 강좌와 회원 생일잔치 그리고 오랜만에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7, 8월 지부일정 공유가 있었습니다.
- ◆ 6월 28일 영아교사 소모임(3차)이 있었습니다. '초기적응'을 주제로 실제 경험 사례와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 ◆ 7월 7일 근로기준법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근

기법 원문의 일부 공부)

- ◆ 7월 9일, 10일 자부회원 집중교육이 있었습니다.
- ◆ 7월 12일 '이라크파병 철회를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에서 하는 천막농성에 하루 동안 함께 하였고 이날 저녁 촛불집회도 진행하였습니다.
- ◆ 7월 13일 지부 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 ◆ 7월 16일 지부 집행국 모임을 갖고 일일주점 선전에 대한 논의 및 준비를 하였습니다.
- ◆ 7월 20일 영아교사 소모임(4차)이 있었습니다. 소모임 회원 생일축하 겸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8월에도 같은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 7월 24일 지부 재정사업으로 일일주점을 열었습니다. 예고 예고, 힘든 하루였지요. 사실 많은 돈은 못 벌었지만 회원들과 몸으로 부대끼는 하루였습니다. 회원님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 7월 29일 보육조례 연대회의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 ◆ 8월 2일 우리쌀 지키기 광주전남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쌀을 포함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됩니다. 그런데 쌀마저 개방이 된다면 과연 -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보육교사회 여러분—우리쌀을 지켜내는 데 함께합시다. 우리 쌀을 꼭 지켜냅시다.
- ◆ 8월 5일 이라크파병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 참여(집행국장)
- ◆ 8월 10일 광주전남 통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속에서 8.15민족공동행사 준비상황보고와 시군구 통일축전상황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페트리트 반대투쟁 보고가 있었고 8.15 민족 공동행사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 8월 17일 8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대구지부]

- ◆ 8월 12, 13, 14일 장애인전담 보육시설협의회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한사랑 어린이집 이봉래, 홍정혜 두분의 선생님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더욱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 ◆ 8월 18, 19, 20 디딤어린이집과 한사랑 어린이집이 상주 성주봉 자연산 휴양림에서 통합캠프가 있습니다.

[부산지부]

- ◆ 7월 14일 동래여성인력센터 교육장에서 7월 교사교육으로 <신자유주의와 보육교사들의 삶>을 주제로 정세교양을 진행하였습니다.
- ◆ 8월 8일 · 2004 경상권 여름연수가 부산보육교사회 주최로 부산여성 센터에서 올해로 7회째 교육연수를 열었습니다. 올해의 연수주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집에서의 리듬생활>로 본회 교육전문위원이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이신 윤선영교수님과 본회의 교육정책 위원이자 서남발도르프어린이집 대표교사로 일하고 계신 이선미 선생님께 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온 보육교사들도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 ◆ 8월 17일 부산보육교사회 소속 시설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 ◆ 8월 21일 3시부터 부산보육교사회 일꾼수련회(운영위+각 부서장 및 부서원+교육위+차기 일꾼)가 해야해야 어린이집에서 진행됩니다. 내년계획과 차기일꾼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지부]

- ◆ 7월 8일 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름 연수와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 ◆ 7월 20일 운영위와 여름 연수 준비팀이 만났

습니다. 여름 연수 마지막 점검을...

◆ 7월 24일 2004년 여름 연수가 '우리, 아이들
이랑 팔하고 놀까?' 놀이에 대한 재발견과 놀
이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이들의 자 유놀이 다시보기에 대해 교육위원
이신 조선경 샘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자유
놀이에 대해 이선미 샘이, 안경자 샘이 펠렛
인형 만들기를, 지연 샘이 지근으로 만드는
다양한 역할 놀이감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다
나. 외부에서 오신 샘들도 많았답니다. 강
사님, 준비팀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 8월 13-14일 운영위 열터가 있었습니다. 열
병메뉴로 저녁 준비를 해서 다른 운영위원 들
을 행복하게 해 준 미나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인천지부]

◆ 7월 10일 열린강좌 동그미 후속모임이 있었습
니다. 신입회원과 열린 강좌 참석자 모두 즐
거운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강사로는 경기지
부 지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7월 13일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교육 일정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
니다.

◆ 7월 14일 조직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 7월 27일 교육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모
임은 8월 24일에 있습니다.

◆ 7월 30일 정책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
음모임은 8월 16일에 있습니다.

◆ 인천지부에 박물관 소모임이 생겼습니다. 상
반기에 개인적으로 박물관 견학을 하시던 선
생님들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월 28일 늦은 7시에 첫모임을 가졌고, 앞으
로 모임의 계획, 진행방법, 공부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중앙
박물관 도록을 공부하며 시대별 주제별로 나
누어 박물관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9월 12일(일) 선사실, 원삼국실 도록을 공부
한 후 중앙 박물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정
기모임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월1회)- 8월은
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인천지부로 연락주세요. 대한
영입니다.

◆ 홍보부 모임이 8월 9일에 있었습니다.

◆ 신입회원교육이 9월 16,17,18(목, 금, 토)예정
입니다.

♡ 사람과사람들

환영합니다!

◆ 부산지부 최정임 샘이 보육교사회 정회원으로
다시 돌아 왔어요. 긴 휴식을 끝내고 재충
전을 엄청 했으니, 열정과 정열로 가득 찬 보
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 인천지부 7월 회원의 날 모임에 신입회원인 이
진규 선생님이 처음으로 회원의 날에 참석하
셨습니다. 적극적인 성격과 아름다운 미모에
전체회원 모두가 반해 버렸어요

축하합니다!

◆ 경기지부 이교진 샘이 용인에 있는 시립어린
이집에 취직하셔서 새로 활동을 시작하셨습
니다. 홀로 활동을 시작하셔서 외롭겠지만 많
은 신입들을 물고 올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부산지부 김순아 샘이 예쁘고 씩씩한 딸을 출
산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더위에 몸조리하
느라 님 힘들지요?

◆ 우리 회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있는 김지희님의 대
학원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부설 보육정보연구소에서 활
동을 시작하여 우리 회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함께 해오신 유정은님도 지난 6월 대구 카탈

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보육교사 및 부모를 통
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길...

◆ 부산지부 김경혜 샘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포구나무에서 3주간 휴가를 받았답니다.

◆ 경기지부 김수연 샘이 위염으로 고생중입니
다. 빨리 건강해지세요.

왕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쉬움과 반가움...

◆ 지난해 7월부터 본회에서 조직담당을 일하셨
던 임정수님이 8월 말로 퇴직하십니다. 사무
실로 전화할 때마다 만나는 반가운 목소리를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회원활동 속에서 ...

◆ 김지희님이 9월부터 사무실 상근을 시작합니
다. 김지희님은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
지부에서 회원으로 활동했고 전보네트워킹
센터에서 근무 하면서도 회원 활동을 하였지
요. 환영의 메시지라도...

☞ 회비를 내셨습니다

(04년6월16일-8월13일까지 입금분입니다)

<지부회비>

서울지부 회비완납, 인천지부 회비완납, 경기지
부 회비완납, 대구지부 회비완납, 부산지부 회비
완납, 광주전남지부 회비완납

<중앙회비>

김 규님 1만2천원 김실이님 2만원
김예경님 1만원 김은숙님 2만원
김지혜님 2만원 김지희님 3만원
신선주님 2만원 조남애님 5만원
조선영님 2만원 최루미님 3만원

하미선님 2만원

<자료회비>

<후원회비>

권성춘님 4만원
김경인님 2만원
김명미님 2만원
김수애님 4만원
김은주님 1만원
김정윤님 2만원
김진명님 1만원
류호선님 5만원
박영수님 10만원
백선희님 2만원
송순우님 3만원
신현미님 2만원
오영숙님 2만원
원명순님 2만원
이미정님 1만원
이지수님 2만원
이희경님 4만원
장성일님 2만원
전정옥님 2만원
주로미님 2만원
최순옥님 10만원
하운하님 2만원
홍현희님 4만원
김현빈님 4만원
지연님 3만원
김경아님 89700원

이명숙님 12만원

백미혜님 4만원

권혜진님 6만원

김동현님 2만원

김민정님 2만원

김영옥님 1만원

김정윤님 1만원

김종원님 6만원

남명자님 4만원

박선하님 2만원

박은아님 11만원

서은희님 2만원

신주영님 1만원

오선영님 6만원

오윤정님 2만원

유희정님 2만원

이미화님 1만원

이현경님 4만원

임태형님 2만원

장혜자님 2만원

조선경님 2만원

최선희님 2만원

최영신님 1만원

한만우님 2만원

노수산님 2만원

김휘경님 2만원

김숙자님 10만원

새쌍둥이어린이집 20만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귀중한 후원금이 소중한 결실을 맺
을 수 있도록 저희 한국보육교사회는 앞으로도 이
땅의 아이들이 좀더 행복한 아동을 보낼 수 있
기 위해, 보육교사가 행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편집후기



자유놀이 시간

다른 방에 있던 선생님을 불러
"우리 결혼했어요"
사진 찍어주세요"라며
가면 촬영을 하던 아이들.
표정이 진지하지요?

한 해 동안으로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옛 노래와 놀이'란 쪽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고, 놀아보면 좋겠지요?

노래가 필요한 경우엔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엄청난(?) 양의 원고를 보내주셨네요.
기대가 됩니다!!!

육아 일기를 써주시던 주로미 쌤이 후배에게 넘기셨네요. 송이가 아기 때 입었던 옷을 물려주며 자연스레 원고를 쓸 권한도 넘기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복덩이의 이름이 무언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이름을 물어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10년만의 무더위가 지나갔네요.
모두들 힘들었지만 자-알 지내셨지요?
여름수련회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생각을 하며 즐거운 요즘입니다.
서로서로 힘 주고받아 올 하반기도 열씨미!!!
살자요...^^*~*~*

교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안전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회원이 되면.....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2-2271-1548